

하루키의 글들에 대한 서평

Roman

소개글

1990년대와 2010년대를 관통하는 하루키의 글들에
대한 생활인의 서평.

목차

1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이 사건을 이야기 하다.(1)	4
2	지하 속에 잠들어 있는 욕망-언더그라운드(2)	13
3	인신공양-언더그라운드 (3)	17
4	매스컴과 종교의 전쟁...언더그라운드(4)	19
5	하루키 서평	23
6	Connect Play Haruki	28
7	Connect It Play Haruki의 해설	30
8	무라카미 하루키(노스모크에서 퍼옴)	36
9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45
10	1973년의핀볼	47
11	1Q84를 읽으면서.....	49
12	1Q84 3권을 읽으며...다보기도 전에...글한편(스포일러 유의)	51
13	1Q84-다 읽고 쓴 감상문(스포일러 많음)	55

01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이 사건을 이야기하다.(1)

하루키를 좋아한다고 하면, 문학을 좀 안다는 혹자는 비웃기부터 먼저 시작하곤 한다는 사실을 안다. 유치한, 또한 자본주의 거품 경제 시대에 부유하는 영혼들을 잘 꼬셔서 한 몫 본 작가 정도로 치부하고 싶어한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하루키를 가치있는 작가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로,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정말로 그런면도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그건 하루키의 일부일 것이다. 하지만, 예술가들이 전혀 대중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전략이나, 돈과는 상관없는 작품만을 만들고자 한다면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고집스러운 망상처럼 보인다.

적어도 먹고 살만큼의 돈과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은, 예술가들도 우리와 똑같이 바라고 있다. 더구나, 하루키는 자기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는 이야기의 전문가입니다.(예술가는 아니라구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의...)"

UNDERGROUND

2년여 전, 이 두꺼운 책을 들고, 지하철을 오가며, 약간은 졸려지는 눈꺼풀을 열심히 올리면서 읽어갔던 적이 있었다. 뛰어나게 재미있는 책은 당연히 아니다. 소재는 "옴진리교"가 벌인 "지하철 독가스(사린가스)"살포 사건.

지금 이 얘기를 꺼내면, 그 오랫동안 얘기를 지금 왜 꺼내느냐고 아마도 심중팔구의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그건 '너무 오래 되어서 들어도 재미없고, 느낌도 없는 사건이다.' 이정도가 그 반응 속에 녹아 있다.

하지만, 하루키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 각각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 남겨진 인터뷰들을 꼼꼼히 읽다보니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내지 않는다면, 적어도 일본이라는 사회나, 전세계는, 앞으로 닥칠 위기들에 대한 방비책에 대해서 아무런 힌트를 가질 수가 없을 것이라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지금 또한 하고 있다.

이 책은 분명히 가치가 있고, 유용성이 있는 책이다. 르포로서만 승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논픽션이기도하며, 문학적 가치를 보인다는 것은 다름아닌, 상황에 대한 철저한 묘사와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감각 묘사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관찰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도 있다...

그 독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라는 집단은 철저히, 교주 개인에 대한 영웅주의에 물들은 집단이다. 그가 세

계에 대해 만사 다 저항해주고, 신도들은 그의 가르침과 출중한 능력의 발휘에 의해서 삶을 지탱해 나아간다는 구도...

시답지 않은 소리 아니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이 종교 집단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는 일본의 대장성 간부, 유수의 동경대, 와세다대 졸업생들이기도 하는, 이른바 엘리트라고 불리는 자들이 상당수 있었고, 지금도 그 경향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 옴진리교라는 집단은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독가스를 친히 지하철에 살포하신 분들과 동일인이기도 하다.

옴진리교의 매커니즘과 지시, 이행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엘리트라는 존재의 극소일부는 날 때부터 부권이나 모권에 대한 맹종이나, 강력한 파워 내지는 권력, 사회 시스템 상층부에 대한 무모할 정도의 집착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는데,

만약 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이 맹종의 동기와, 시스템에 대한 실망, 권력의 아귀다툼에서의 추락 등을 겪게 된다면, 그들은 굉장한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 허탈감을 메우기 위해서 흑자들은 과도한 난

교, 쾌락의 추구, 광적인 취미에 대한 집착, 기타의
탐욕 가득한 자의 길을 걷게 되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잃어버린 욕구의 지향점'을 대신할 무언
가를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종교활동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로서 정리된 이야기로 말이다.

주류 종교활동에 대한 몰입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움
진리교는 바로 역사적 전통과 대중적 호응 그 자체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라기 보다는 "교주
" 개인에 대한 영웅시와 자신의 삶의 지향점을
그 교주와 동일시 하는 '마인드 컨트롤'에 주안점을
둔 집단이었으므로, 교주가 자신의 종교의 부흥과 지
속성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느꼈을 때,

이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복잡다기한 세상에 대한 무
차별적인 살육을 지시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분명히
새로운 국면, 교주가 무심히, 움진리교 인이 아닌자들
에 대한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보다 나은 존재임을 뚜
렷이 드러내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는 것은 바로 교주와 일체화된 자신으로
서 '보다 나은 자로서의 자신'을 확신하게 만들게 되
는 메커니즘에 의한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성적 분석력과 탁월한 지적 종합 능력
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적정의 두뇌가 '어찌되었든 교

주가 된 존재'가 되었을 때는, 그와 호응하는 사람들을 제 맘대로 조정해서, 무심히 그 능력이 떨어지는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을 제멋대로 무시해서 '죽일 수 있으며, 죽여왔고, 죽여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책은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과 다른 세상에 있다고 판단되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다들 멍청하고 살 가치가 없었던가?

그 통근 전철 안에 있었던 어찌보면 뛰어난 것 없이 살아온 승객들은 정말로 살 가치가 없었던 인물들이었을까? 여러개의 호선에 잠입하여, 독가스 봉지를 우산 끝으로 툭툭 터뜨리고 전철 밖으로 나가버린 옴진리교인들을 목격한 사람들, 살인자들을 직접 알고 있었던 사람들, 지하철 밖의 끔찍한 풍경을 보았던 사람들, 지금도, 독가스 후유증으로 헤메이는 사람들, 역무원들은

절대로 그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꼼꼼한 일상을 꾸며오고, 앞으로의 창창한 일상을 꾸미는 가장, 성실한 역무원, 자신들의 노력과 지혜로 꾸며온 생활을 가진 부인, 그리고 이른바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정받는 우수 재원으로로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날 디즈니랜드를 놀러갔을 여자 등등...

그들은 하루키의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이다. 어쩌면 작가가 일부러 고르거나 않았을지 생각될 정도로 강력한 흡입력과 매력을 지니며 이 사회가 나름대로 조화롭게 굴러가는 이유를 정당하게 제시해주는 '인간 됨'이 하나하나 다 풍부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매스컴에서 이 사건을 취급한 방식

우리는 매스컴이 사고를 보도할 때, 전부를 다 보도하는 듯이 촬영하고, 나레이터를 까는 그 다큐멘터리식 모드에 익숙하다. 그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바로 쉽게 망각하는 것에 더더욱 익숙하다. 수십만이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더라도, T.V에서 비친 10-30여초간의 영상을 본 기억과 기사문은 1달도 채 그 감각과 흥분을 기억해내는 단서가 되어주지 못한다.

영상과 감각의 세대로 흘러들어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잃어온 것은 바로 다름아닌 이웃의 아픔에 대한 공감의 측면이다. 이웃이나 친구가 아픔을 겪으면, 이를 같이 진심으로 아파하는 그 모습도 이제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누군가 재해나 테러, 무참한 몽둥이질을 당해도,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잃어버리는 시간은 영상이나 뉴스가 눈앞에서 사라짐과 거의 동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잠시간의 화제거리...그정도나 되면 다행이랄까...

이 상황에서, 일본 매스컴이 이 옴진리교의 독가스 살

포 사건을 보는 구도는 너무나도 편협하였다. 나쁜놈(옴진리교 일당)/좋은놈(피해자들), 이정도의 구도만큼 시청자들을 덜 부담스럽게 하고, 쉽게 방영할 수 있는 구도가 더이상 어디 있었겠는가? 이건 마징가 Z 구도이고, 제타로봇 구도이며, 그랜다이저 구도이다.

한마디로 만들기 쉽고, 이슈화 하여 시청자들의 흥분도를 높이기 쉬운 방법이었으며, 동시에 사람들의 뇌리에서 더이상의 생각이나, 사건의 본질을 해독할 수 있는 여지를 거의 사라지게 만든 방식이었던 것이다. 한정된 신문지상, 그리고 한정된 방송 시간의 극대화...

대부분의 하루키가 만난 인터뷰어들은 매스컴에 나왔다고 하면, 인터뷰를 거부하기 바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따위의 방송과 기사가 자신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기 보다는 왠지 멍청하고, 바보스럽게 보이도록 만들고, 상처입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경험했던 것이다.

사건 현장...

그 비극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승객들과 역무원들은 무의식 중에 독가스를 흡입하면서, 점점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 받으며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아무일 없었던 오후, 나른한 바깥 공기를 들이

마시고, 지하철을 탄 뒤에, 하루의 기가막히도록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자신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닥쳐온 것인지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누군가 "독가스다!!"라고 외친다, 서둘러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을 가누어보려 하지만 이미 체내 깊숙히 독가스는 들어와 차있다.

사람들은 아무 이유없이, 아무런 방비책이나, 아무런 예상없이, 더더욱 아무런 저지른 죄도 없이 개죽음을 당할 뻔했던 자신과 죽어간 타인들의 상황을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너머로 처절히, 때로는 담담히 기억해낸다...



02

지하속에 잠들어있는 욕망-언더그라운드(2)

어떤 종류의 욕망이란, 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이 계명에 대해서는, 진리고 비진리의 여부를 떠나서, 사람의 욕망 중에 가장 꼬집어내지 말아야 할 부분을 말하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어쩌면 기독교와 구약을 나뉘쓰는 처지에 있는, 이슬람도 이 계명을 받아쓰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이나 테러, 또는 이웃의 살인에 근접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란말이나? 그건, 아마도, 좀 더 유연한 사유가 필요할 것이다. 그때는, 그 러한 일에 따른 이른바 '상황 윤리'라는 것이 필요해진다. 여호와 증인의 지나치게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고지식한 메달림처럼, '군대 가지 말 것', '일체 비저항 무투쟁 주의'라는 것은, 현실의 끊임없는 상황 변화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노출하는 것처럼 보인다. 타인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힘이나 방지책을 가동시켜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타인을 살해하고자 하는 충동을 억눌러야 하는 것은, 바로 내부의 타나토스(자신, 또는 타인을 죽이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다스려 나아가 자신을 또한 지키고, 타인 또한 지켜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본능이나 욕망/욕구를 우리의 내부 깊은 곳, 지하로부터 꼬집어내고자 하는 그 별난 책동들은, '죽음'의 본능을 지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인간의 악마적 '유희'이기도 하고, 방지되어야 할 극악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하지만, 죽고자, 또는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나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될 경우에는 나는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을 피하는 도리밖에는, 또는 제거하는 수 외의 다른 방법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나 힘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 글에 첨가하려한다. 다만 그 순간은 어떻게 싸워나가야 하는가를 조금, 알아들어가고자 하는 것뿐이다.

모든 행위는 선이다?

인간은 신의 모습으로 빚어진 존재다. 이점은 아마도,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다른 해석이나 역사적 견해, 문화적 뉘앙스의 차이를 접어두더라도, 이것은 일단 그들에게겐 진리이자 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약적 논리도 가능해진다. '우리가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는 신의 것을 본딴 행위, 신이 우리에게 허용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내가 살인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신의 행위이며, 신은 선한 존재이므로, 나는 선한 행위를 한 것이다.' 반론을 펼 분들은 점점 많아지겠지만, 이 논리를 토대로 살인을 한 사람 앞에서 그 말들을 끝까지 나열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 없을 것이다.

삼단 논법이고, 명제 논리고 간에, 이러한 굴곡된 논리, 왜곡되고 강화된 사유를 통해서, 살인범은 살인을 하고, 정치가는 정적을 제거하며, 애인은 배신을 하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인간들 서로는 서로를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발발하게 되고는 한다.

이런 지옥같은 상황을 곧이 곧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인간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항상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바른 생각과 상식에 입각한 행동만 하면 좋으려면만은,

비합리와 오류에 가득찬 논리, 그리고, 말로는 형언되지 않는 카리스마, 욕망과 욕구에 대한 적절한 자극이 범벅이 된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납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부에 분명히 눌러두고 있어야 했을 판도라의 상자뚜껑을 열어버리게 된다.

영상/광고의 끊임없는 기술향상, 마케팅의 다종 학문간의 연계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무의식에 대한 자극의 기법의 끊임없는 세련화는, 바로 다름아닌 이 뚜껑 아래에 있는 욕망을 바로 소비자, 시청자, 관객으로 하여금, 자기 사유 속의 합당한 현실 인식을 뭉개고 그들로 하여금 대책없는 소비의 향유나, 중독적인 "일상"으로의 함몰을, 어느정도는, 목적으로 한 것이기 마련이다.

우리가 현실로서 체감하고, 경험하는 감각 밖의 세계를 꿈꾸게 하는 방식과 내부의 심리 속에 분명히 억눌러 두어야 할 무엇을 개방시키고, 터뜨려 나오게 하는 것으로써, 광고나 영상이 승부하는 것은, 이미 더이상 이야기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일상"이다. 대부분의 누구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

대중을 조종하는 것은 마스크.

그래서 바보상자라고 불리웠었다. 하지만, 긍정적 정보, 문화 유통의 값싸고 편리한 수단으로서의 T.V나 신문의 기능에 대해서까지 어떤 저항감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노출의 정도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문화와, 옹고그름, 판단에 대해서 이 매스미디어가 작용하는 바는 얼마나 큰가?

매스미디어는 또하나의 의식의 제전의 장소이며,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대다수의 대중을 통제하고, 조정하며, 윤리를 부여했던 근대 전후의 세계의 모습을 또다시 하루하루, 한시간 한시간 구현하는 기제이다. 논리가 세련되고, 보다 일상을 리얼하게 구현하면 구현할 수록 이 의식적 기능에 대한 감탄은 더더욱 큰 경탄으로 바뀌어 간다.

그리고 마스크와 테러사건, 인신공양의 삼각관계.

끊임없이 반복되는 뉴욕 쌍둥이 빌딩의 무너지는 화면, 그리고 희생자의 모습 긴박한 상황, 무방비의 미국, 그리고, 잔악한 테러, 아무도 정체를 감잡을 수 없고, 꼭집어 이놈이다라고 누구도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무방비의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면, 그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는가? 국가 위정자에 대한 타나토스...그건 집권층이나 보안, 치안을 유지하며 책임진다고 있는 국가권력이 될 것이다.

만약 이 화면 상에 빨리 어떤 다른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중은 쉽사리 이 분노를 국가 위정자나 국가 권력을 향해 내뿜게 되어 있다. 부시는 또는 파월은, 증거가 없더라도, 어찌되었든, 완전히 때려부수어야 할 대상을 빨리 만들어내야 하거나, 화면상에 자신들과 대극으로 보일 수 있는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도록 만들 필요를 갖고 있는 쪽의 인물들이다.

그건, 전통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인간계의 모습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집단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자 하거나,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그 거처장스러운 무언가를 제거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비가 안올 때 인신공양을 하는 풍습의 시초는 힘없고, 뺨 없는 노약자나 유아, 여성으로 넘어오기 전, 바로, 이 우두머리의 몫이었다. 죽어왔던 놈, 혹은 녀은 다름아닌 그 집단의 우두머리였었던 것이다. 실상은...

참조 : 하루키 [언더그라운드], 작자 미상 [사형 대백과]

to be continued...

03

인신공양-언더그라운드(3)

원시 시대의 의식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근거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아직 원시적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이른바 '미개부족' 또는 오지에서 부족 생활을 하고 있는 각각의 원시적 풍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연구에 있다.

원시 부족들이 느끼는, 부족내의 일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현대인이 국가라는 사회 울타리 안에서 느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그들은 전혀 자신이 상관없는 이유로 부족내의 타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 죽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하며,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든다. 전혀 '논리적인' 연결점이 없는 감정적인 판단이다.

그들은 그 와중에 자신의 죄책감, 또는 부족민 전체의 죄의식을 억누르기 위해서, 마을 내의 약한 자나, 유아, 여자를 죽은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죽이거나, 다르게는 다른 부족의 여행자나 사냥꾼을 죽여, 마을 내에 벌어진 동요를 가라앉히곤 한다. 결국 이러한 풍습은, 사람들 내부에 벌어진, 전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죽음이 불러일으키는 죄책감에 대한 반사적 행위로 이들에게는 각인되고, 문화화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힌트는 그렇다면, 원시부족의 풍습이나 문화로부터 분화되어 나와 있을, 지금의 현대 사회의 저변에는 이러한 '인간의 잃어버린 풍습'의 잔재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서 잔인한 살인을 당할 때, 그 살인자를 향해 칼을 쫓는 것은 하나의 올바른 반응이고 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저기 어디선가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이유모를 분노에 휩싸이고, 그 살인의 용의자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역겨움에 불타는 순간은, 어쩌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이 '인신공양'의 풍습의 잔재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뭔가를 벌여왔고, 다시 묻거나 눌러왔다. 풍습은 변형되고 의식은 바뀌었고, 사회의 문물은 다양화와 일종의 변화, 통합 변형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그 저편에 어디선가는 그치질 않는 완전히 잃어버려지지 않은 것의 움직임이 우리의 파동을 건드려 같은 움직임을 다시 이루어내도록 만든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to be continued.....

04

매스컴과 종교의 전쟁...언더그라운드(4)

미국 매스컴이나 이슬람이라는 종교나 바로 이러한 인신 공양의 원형적 풍습에 충분히 부응하는 바의 대중 선동(Mind Control)을 적절히 하고 있는 대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

종교적 마인드 컨트롤의 의혹.

오사마 빈 라덴이 어떤 이유로, 미국을 완벽한 원수의 나라로 돌렸는지, 그 내밀하고 충분한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 그러했건, 누가 그랬건 간에 종교적 마인드 컨트롤이 이번 자살 테러에 사용되었으리란 것은 충분히 짐작해볼 만한 일이다.

신의 이름으로, 이슬람의 영광을 더럽히는 미국에 대해서, 무고하건, 죄가 있건 없건, 이슬람 제국에 해를 끼치고 누를 끼친바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이슬람의 적"이라는 덩어리로 미국 사람들을 보고, 무차별의 대량 살상을 지시받아 이루어 낼 수 있게 만들려면,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능력,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세뇌나 커다란 의미부여의 의식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슬람의 지하드, "성전"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분명히, 하나하나의 인간을 인간으로 보는 단체는 아닐 것이다. 우리 "이슬람을 믿는 자들"과 "저쪽의 이방신을 믿거나, 혹은 안 믿는 자들"의 단순 이분법에 사로잡힌 인간, '광신자'로 구성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오사마 빈 라덴' 또는 여타의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 잘 훈련된 개처럼, 아무나의 목을 물어 뜯을 수 있는 기계로, 그 테러리스트들을 만들 어냈을 것이다. 난 그렇게 가설을 세워본다. 물론 그들의 머리는 '신의 이름으로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게 신의 명령이었을까? 수많은 종교 전쟁, 종교로부터 비롯한 대량의 살상과 무차별의 파괴들은 정말로 신의 명령이었을까?

그런데 신의 명령들이어 왔다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 인간들은 신의 명령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태어난 것 같다고. 그 신이 무엇이건 간에 인간을 자신을 섬기고 믿는 쪽, 안믿는 쪽으로 나뉘서, 믿는 쪽이 안믿는 쪽을 맘대로 다뤄서, 심지어 죽일 수도 있게 만든게 신이라면, 난 차라리 신을 상대로 싸우지, 그냥 죽거나 인간을 죽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매스컴 컨트롤의 의혹

"CNN Exclusive" 이제 이 글자는 한국어만큼이나 익숙한 표현이 되어버렸다. 마치 이 대량살상의 테러와 미국과 테러집단과의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기라도 했다는 듯이 난리 법석인 CNN과 대중매체는 연일, 매시간, 매분 영상과 기사,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참상, 그리고 바야흐로 개막된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무감각해질 정도로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다.

처음에 뉴욕 쌍둥이 빌딩의 폭파 장면을 보여주면서,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응징의지와 이에 대극에서 설만한 인물로서, 오사마 빈 라덴을 신속히 지명하고, 이를 끊임없이 부시와 빈 라덴의 대결 구도로 확정시켜놓은 미국의 매스컴은 얼핏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미국 전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를 이끌어낸 공신이다.

"전쟁 찬성 94%의 지지율"

이슬람이 "성전"으로 테러를 승화시켜 온 이슬람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미국은 이른바 상식에 호소하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승화 공식을 통해서 아프카니스탄에 날려보내는 폭탄과 군사력을 정당화 하고 합리화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인 3,500 명이 죽은 이 대참사에 대해서는 클로즈업 디테일로서, 그 참상과 고통에 대해서 세세히 밝히지만, 아프카니스탄의 수도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한 공습에 대해서는,

마치 오락실에서 쉽게 보아 왔던 듯한 통쾌한 화면, 폭탄이 Targeted된 곳으로 날아가 깨끗이 날려버리는 장면만을, 되도록 흐릿한 영상으로 내보내고 있다. 아프카니스탄 군인들이 죽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관없는 부녀자와, 아프카니스탄 내의 비 이슬람인들 또는 이슬람의 성전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누군가가 죽고 있다는 상황 자체는 완전히 그 화면 내에서 제거 되어 있다.

누군가 죽고 있다는 상황은 뇌리에서 사라지고, 응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심감과 통쾌한 복수의 쾌감만이 그 장면 속에선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이분화된 구도 "이슬람의 빈 라덴", "자유 민주주의 서방의 수호자 미국, 그 대통령 부시와 참모들"에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공중파 방송 앞에 노출된 미국인, 또렷이 말해보자면 미국내의 사람들은, 이것이 정당한 미국과 미국 밖의 "적"에 대한 공격이라는 공식을 갖도록 대부분 확실히 컨트롤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양비론은 아니다...

그래서 난 미국 나쁘다, 이슬람 나쁘다, 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둘 다 나쁘니 서로 치고받다 맘대로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사마 빈 라덴 또는 이슬람의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서방에 의해서 분열당하고, 약탈 착취당한 역사적 치욕을 무감각히 인정하고 살아왔던 세월들을 벗어던지고, 다시 뭉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오사마 빈 라덴의 경우에는 이슬람의 영웅이 되어버렸다. 신격화된 영웅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 얼마나 대놓고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신나는 일일까?)

미국은 최근의 경기 저점화 현상과, 국내의 국론 분열 상태를 벗어나 다시금 강한 미국의 위용을 널리 떨치며, 군수 산업의 또다른 부흥을 통해서 실업을 해소하고, 일부의 자본가들의 또다른 성공과 매스컴 기업, 특히 CNN의 기하 급수적 방송 시청률 확장의 가능성을 가진 기회를 잡은 것인지도 또한 알 수 없는 일이다.(이 얼마나 공공연히 밝힐 수는 없겠지만 짜릿한 일일까?)

그럼 그 와중에서, 우리 같은 제 3국과 전쟁에 나간 군인으로서의 미국인들까지 포함한 미국 내의 사람들, 아프카니스탄의 이른바 테러와는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얻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들 앞에 등장 놓여진 것은 "죽음"이다. 물론, 제 3국에게는 실업과 물가 인상, 경제적 혼돈의 초래 등등이 보다 구체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닥쳐올 것은 자신의 행위에 관계 없이 다가온, 실업의 위협이나 경제적 곤란, 그리고 본인의 판단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용되고 있는 지시와 세뇌에 의한 분노와 흥분. 파괴욕에 휩싸여 그 이익보는 자들이 생각하는대로 끌려갔다 끌려오는, 또는 그 파괴욕에 의해서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태일 것이다.

왜 나는 매스컴과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대결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가?

지금의 방송이나 매스컴을 주시하다보면(결국 나도 이 매스컴이라는 것을 벗어나, 정보를 바라보기는 힘들어진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일 뿐이다.) 이 '탄저병' 병원체가 미국 방송인들에게 배달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알 수 있다. 그게 왜, 대사관이나 백악관, 정부 인사들

에게 배달되지 않고 있는가? 왜 하필이면 방송인인가?

1.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게 세균 공격을 하면, 그 정보는 방송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정보 차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상대여야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 유명한 정치인이야 또한 얼마든지 있다.)

2. 방송인들에 대한, 테러는 보다 예방되지 않는 사각지대이다.

3. 이 테러집단은 미국을 움직이는 것이 마스크업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따라서 어딜 노려야 미국민들이 받는 공포와 두려움이 커지는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

4. 애초부터, 이 테러는 마스크업을 통해서 미국민들을 놀라게 만들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이슬람 테러집단'은 미국의 정부나 군사조직보다 바로 이 마스크업을 상대로 한 테러 플레이를 할 작정을 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하겠다. 이 테러집단은 자신의 종교 지도부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리고 대결구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난, 지금 이시대에, 그 수많은 지식과 판단 능력을 한껏 끌어올려주는 자료들을 갖고서도, 인류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인가를 꼬집고 싶어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일본을 증오하건, 유대인을 역겨워 하건, 미국 노랭이를 싫어하건, 이슬람인들을 싫어하건, 반기독교인들을 경멸하건, 기독교인들을 경멸하건간에 그게 "당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딴 사람이 당신 뇌에 주입한 사고에 의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야 봐야 한다는걸 말하고 있는 중이다.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마인드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가? 아직 인류라는 이 지혜로운 존재가. 태어나기 전에 의식이 온전히 만들어지기 이전에 뱃속에 있는 우리라는 존재는, 자신의 어머니와의 언어적 교류가 없었어도, 어머니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감잡는다. 또한 태어나서도, 자신 앞의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다른 것들이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그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삶 속에서, 우린 그러한 능력을 까먹고 만다. 말 그대로 잃어버린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너머에서 진짜로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나는 개싸움꾼들을 몹시 싫어한다. 싸울 이유도 없이 싸움꾼들의 꼬임에 개처럼 서로의 목덜미를 덮치게 되는 그 현상들을 역겨워한다. 내가 또렷이 발견하고 주의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대상은 지금, (미국의) 마스크업이라는 도구를 다루고 있는 놈들과,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도구로 살육을 일삼고 있는 놈들이다. 그게 옴진리교의 교주이기도 하고, 이전의 일본 마스크업의 어떤 부분이기도 하다.

그 놈들은 인류의 역사상 정말로, 나타날 필요가 없는 놈들이었다. 그 외에도 역겹고, 더러운 놈들이 많겠지만, 이번에는 그 놈들만 미워하겠다. "죄가 미운게 아니라, 그 죄를 뻔뻔스럽게 짓고 있는 놈들이 밉다." 이 놈들만 서로들 주의해서 정체를 파악하고 있으면, 우리가 볼 피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05

하루키서평

Highly Sophisticated Capitalism Society

Some people say that we are facing the end of the world. Murakami Haruki usually says "Highly Sophisticated Capitalism Society" in his short story. How could we endure our agony in this bush? Haruki said "Enjoy Your Life!". The meaning of 'enjoy' is quite different from the usual definition of the word at the moment. First, please realize you are real human beings. Secondly, kindly sympathize the principal points of human beings. Thirdly, clearly understand what drives our world to the end of the world. --[Roman](#)

하루키의 글들에 나타난 Highly Sophisticated Capitalism Society 에서 Enjoy의 의미에 대한 고찰

고도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는 하루키의 글에 대해서

서론, 하루키 문학, 독자와 비평가들의 거울과도 같은 작품

하루키를 어떻게 읽던지, 그것은 각자가 자신이 경험이나 정보로 만들어온 부분에 갖다 맞추면 묘하게 잘 들어맞는, 마치 자신의 생각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작품이라, 솔직히 '누가' 난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면, 묘하게 상처입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문학사 상사에서 펴낸, 본격 하루키 평론들을 보거나 곳곳에 띄워져 있는 서평들을 읽다보면, 과연 하루키는 누구지? 뭐라 말하기가 곤란해지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정통 연애소설로서 [노르웨이의숲](#)의 캐릭터들이 일련의 극적 요소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적절히 배치되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납득시킬 수 있을만큼 아가자기하게 짜여졌다는 면을 강조하고, 누군가는 '헛간을태우다'같은 단편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이고, 언어학적인 면을 부각해서, 디지털 언어의 사용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보기도 하며, 김난주같은이는 인간의 원형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근원의 우물 속으로부터 뭔가를 퍼오는 작품이다라는 보통은 그 분들이 속해 있는 일련의 그룹들의 성향이나 경향, 습속에 호응하는 해석들을 내어놓고 있다.

평론은 때로, 작품의 가치를 심하게 오독하곤 한다. 작품이 요새를 남부 마을 깊숙한 곳에 초라하게 놓아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나바론의 요새처럼, 절경이 어우러진 섬에, 매커니즘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보다 화려한 위치에 딱하니 멋지게 놓아두었다고도 하고, 솔직히는 견고한 합금을 걸쳐서, 섬세한 매커니즘과 유려한 상징, 비유, 은유 속에 심오한 의미와 더불어 놓아두었음에도, 뒷집 마당에 개집처럼 내놓은 것처럼 얘기하기도 한다. 우리는 아마도 최적의 평가가 무엇인지를 모르체, 그의 책을 읽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호함을 모호함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의미에서 하루키를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80년대 정도의 정통적인 문학인들에게나, 하루키 이전의 한국 소설의 경향을 보자면, 한국 정통 소설가나 작가들이 처음으로 하루키의 책들을 들어 읽었다면, '뭐, 이렇게 쓰레기같은 작품'이 다 있지? 하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속에는 솔직히,

위대한 사상이나, 위대한 삶의 가르침, 인생관, 세계관들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너에게나를보낸다](#)"를 보자면, 그것은 '읽을거리'라는 표현을 갖는 작품에 보다 가깝다. 작가 자신도, 이 책이 위대한 '예술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피한다. 순문학으로서의 새로운 시도, 그리고 재미있는 소설의 유희적 측면이 새롭게 부각된 소설로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볍고, 대중적이고 감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루키 작품의 일부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루키의 문학이 비추고 있는 것은, 고도산업자본주의에 대해서 비꼬고 약간은 조롱하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얼마나 더 즐겁게 살 필요가 있는 동물인가의 측면이다. 물론, 이것은 일부 몇명, 또는 다수의 생각이 하루키의 소설 속에서 거울에 반사되듯이 비추어지고 있는 측면에 불과한 것인 지도 알 수 없다.

고도자본주의 사회로의 일본사회가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하루키 작품들의 비유적 설명

[양을둘러싼모험](#), [바람의노래를들어라](#), [1973년의핀볼](#)에서 우리는 하루키의 작품이 고도산업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고난 뒤의 일본, 그 속의 젊은이들 그리고, 일본사회가 고도산업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기까지의 내용들이 일련의 우화वाद 같은 얘기들과 더불어 소개되고 있다.

쥐와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솔직히 무엇을 해야하는지, 또는 비판하고, 열렬히 저항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어떤 종류의 의식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서 보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의욕따위 그들에게겐 전혀 없다. 마치, 성공의 욕구따위가 완전히 거세된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각도에서 소개된다. "나"는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평범한 가족이었고, 매일같이 아버지의 구두를 닦았던 것이 가족생활의 언급된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쥐의 경우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그의 아버지는 일련의 자본가, 이른바 부자이다. 질나쁜 상품을 만들어서, 전후 일본 사회에 무작위로 팔아먹고, 그 이후에 보다 확장되어서,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보건 말건 상관없이, 공장을 짓고, 소비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상품을 팔아 계속해서 '부'를 늘려간다. '쥐'는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자신이 속해 있는 계층이나 계급, 부유한 환경자체를 긍정했다면, "나"와 맥주나 계속해서 들이키고, 웬지 아무 의욕없는 듯한 나날을 보내며, 일탈일뿐인 소설나부랭이나 쓰면서, 소설속의 일상을 지속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존재규명의 유희वाद 같은 강박적으로 숫자세는 모습(전화벨소리,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갖가지 행위가 벌어진 것의 수치를 계속해서 파악하는 것)들은,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규명이 그 정도를 통해서나 어느정도 감잡히게 되는 젊음.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적으로 왜소화해버린, 고도산업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인간형, 또는 [어중간한선인](#)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1973년의핀볼](#)은 자본주의 메커니즘 속에 갇혀서, 핀볼게임같은 시스템 속에서 얻는 유희속에서 자신의 가능성과 보다 확장되는 꿈을 갖고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마치, 요요처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일정 이상의 가능성은 더가질 수 없도록, 그자신 어느 정도 벗어났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이끄는 상황에 대한 비유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소비하는 기계, 중독되는 기계, 그리고 부속으로서 적절히 가공되어야 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소설 속의 모두를 보고 있다. 이 고도산업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소설 속에 내재화 되지 않는, 주로 유럽소설의 뿌리들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의미심장한 주제들을 다루는 작품들은 화려한 꿈을 자주 꾸고, 그 스케일은 점점 커지며,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과, 인간의 지적 변혁에 대한 강렬한 열망, 인간 고유의 부분에 대한 사고, 사유, 이른바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맞추지만, 실로, 하루키의 소설은 그 위대한 작업들로부터 조금은 멀어져 있다. 그것은 보다 평범한 위치나 사고의 소유자들이, 이 사회속에서 분명한 현상으로 겪는 일들에, 소소한 일상사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유럽적이랄기 보다는 미국적이다. 소설의 역사적 맥락이라는 것이 [밀란쿤데라](#)의 [사유하는존재의아름다움](#)에 나와 있는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하루키의 소설은 많은 평론가들이 지적하듯이, "미국 소설"이라는 줄기에 속해 있다.

문학의 향유, 도시의 기호화, 서로를 쓰다듬는 섹스

하루키 글들에는 멋진 문화의 양식들이 다채롭게, 그렇지만, 절제력 있게 등장한다. 수많은 팝송들과 재즈, 그리고, 때때로 클래식, 멋진 음식을 먹기도 하고, 때때로 사치스러운 짓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누구나 이 시대의 도시 속에서,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의 가능한 양태들을 즐기게 말해주고 있다. 문화는 그 자체에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감동을 체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보다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느끼도록 이끌어준다. 미국문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과도 가끔 맞닥뜨리곤 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런 모습들은, 그의 소설들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망가지게 된다. 우리가 미국인이라도, 보다 관심을 끌고, 매력을 느끼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한국의 것이건, 일본의 것이건, 솔직히 즐길 수 있는 인간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반복되게 보여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도산업자본주의 사회의 복잡한 기계의 일부인 부속으로서 끝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은, 일하지 않는 자는 밥을 굶어야 하고, 게으름은 빈궁을 불러들이니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강박적인 주입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하루키의 글은 그러나 즐길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것이 멋진 감각으로 자신에게 스며들어오게끔 말한다.

갖가지의 브랜드 이름, 음료수, 술이름, 차이름, 가게 이름. 전통적인 글쓰기에 따르자면, 쓸데없는 것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누군가는 화를 내면서, '이런 쓸데 없는 것들을 쓰라고 글이란게 있는게 아니야!'라고 외쳤지만, 하루키의 글들의 대중적 성공은 그런 말들을 무색하다는 듯이 쓸어가 버린다. 그것들을 즐기고 구입하고 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인식 속에 얼마나 많은 상품의 브랜드가 많은 의미의 기호가 되어서 들어차 있는가를 토한 음식을 보면서 낮에 먹은 음식을 살피고 있는 주정뱅이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깨닫게 해준다. 그것은 보다 편안한 기호로서,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고 있다. 우리의 관심을 끈다.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는 바로 우리의 진실이다. 이 사회 속에서, 그러나 무엇이 자신을 소비하도록 이끄는가에 대한 약간의 사색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루키는 놓아두지 않는다. '차는 페라리, 시계는 롤렉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모두를 똑같아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커피 체인점을 보면서, 똑같은 규격의 찻집이 전세계나 전국의 어디라도 존재하는 그 맥빠지고, 모두를 균일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는 역학들을 가만히, 점잖게 조롱하고 있다. 우리에게 즐거움은, 백로처럼 되는 것도, 보다 고상한 왕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다, 정성이 있고, 보다 즐거움이 있는 자리에 우리자신으로서 온전히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원하는 규격품 속에서 헤메이며, 사회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도록 만든다. 저항감없이, 서서히 나는 책을 읽으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인간들은 결국에는 죽는다. 사라진다. 그것도, 일정하게 아주 먼거리에 있던 죽음이 찾아와서 죽는게 아니라 단 1초 후에라도 죽을 수가 있다. 그 사라짐을 팽팽하다싶을 정도의 긴장감으로, 진심으로 내부에 받아들일 수 있는, 또한 누구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이란 결국 그 섹스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금세라도 사라질 수 있는 존재에 대한 경의이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 관계로서의 섹스, 그리고, 타인의 의미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미의 섹스나, 아무런 고려가 없는 섹스는 그의 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 속에 묘사되어 있는 것들을 읽다보면, 섹스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추잡스럽다는 느낌은 오히려 저멀리로 사라져버린다. 묘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는 중시하고 있다. 내가 진심으로 이 삶의 한복판에서 어느덧 사라져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과 매커니즘의 도시에서, 서로를 아낌으로써, 서로의 존재를 규명하는 존재임을 더더욱 드러내는 의미로서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너무도 인간적인 방식,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멈추지 않는 주제의 변주

하루키는 [태엽감는새](#)를 통해서 좀 더 사회적이고도 본질적인 주제, 또는 사회 속으로 본격적으로 파고드는 주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 침묵아닌 침묵으로 꽤 긴 시간 멈추어 있었다. 사람들 중에는 그의 작가적 생명이 이

미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언더그라운드](#)와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해버린 신변잡기 스푸트니 크의연인들을 넘어서서, [해변의카프카](#)로 적어도 한국에선 다시금 자신을 향한 독자들의 관심에 부응하였다. 15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터질듯한 에너지의 응축과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사회의 힘과 무게에 미칠듯한 진통을 겪는 나이이자, 자신의 세계 이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커다랗게 열리는 나이인가? 아니면, 그다지 순수하지 못한 세계화 불합리로 점철된 기성세대가 다시금 반복해주는 불합리적인 질서가 뻗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인가? 아니면, 진정한 삶의 질서를 깨닫고,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그 질서의 위로 차츰차츰 올라가는 작업에 몰입하도록 이끄는 시기인가?

[Roman](#)은 하루키가 [태엽감는새](#)에서 본격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내용인 자기자신의 아버지되기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느꼈다. 생활 윤리건 정치윤리건 우리의 눈앞에서 어느새 저곳으로 사라져버리고, 전통의 도덕적 덕목들이 맹렬하게 무너지는 시대에, 이제 남아 있는 개개인들에게 남겨진 것은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가 되어, 세상에 맞는 윤리를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말을 다시금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왔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스토리가 살리고 있는 인간 본연의 성숙의 신화, 그리고 성욕 없이 고집 세계 자신의 무지와 더불어 형성된 윤리를 지켜가는 이면적인 또 다른 인물의 모습은 스토리의 어디에서도 합치되지 않지만, 이 두 인물의 모습이 바로 소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성숙에 대한 자극"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의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 미약하지만, 즐거운 소설의 진행이 끝나면서 작은 소리로 들려온 메세지였다. 그리고 그것은 훈계나 경구 같은 것이 아니어서, 더더욱 내부에 진득하니 오래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06

ConnectPlayHaruki

[무라카미하루키](#)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ConnectItPlay](#)

K□nigsberg의 다리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에 이름을 넣고 참여해주세요. ☞

필명	점수
Roman	1
PuzzletChung	1
사과나무	0

-- [노스모크](#) 에서 옮겨온 글

07

ConnectItPlayHaruki의 해설

X-X	연결고리(대상)	연결자	인정?	요약설명	순차
A-B	무라카미하루 키-바람의노래를 들어라	Roman	○	하루키의 처녀작으로서, 군상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하게 된 주요 작품.	1
A-C	무라카미하루 키-양을둘러싼모험	Roman	.	하루키가 어떠한 작가인가의 성격이 보다 명확해진 시점이 이 책의 출판 시점이다.	4
A-D	무라카미하루 키-하루키가말하는enjoy의의미	Roman	.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은근한 비판을 담고 있는 하루키의 글 속에서의 인간의 의미, 갇혀 있으나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져야 하는가?의문제가 좀 더 진지하게 말해지고 있는 페이지이다.	5
B-C	바람의노래를들여라-양을둘러싼모험	Roman	.	청춘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이 작품으로부터 스토리 중심의 극화적인 작품의 하루키가 나오게 된다.	3
B-E	바람의노래를들여라-1973년의핀볼	Roman	.	두번째 작품으로서, 고도 자본주의 사회 속의 젊은 군상에 대한 보다 날카롭고도 감각적인 시선, 그리고 특유의 문체를 전작에 이어 다시금 볼 수 있다.	2
C-F	양을둘러싼모험-댄스댄스댄스	Roman	.	양을둘러싼모험 에 나왔던 인물들과 지리적 배경이 다시금 이 작품에 나타난다.	6
D-E	하루키가말하는enjoy의의미-1973년의핀볼	Roman	.	1973년의핀볼 은 소설 속 화자의 시대 속에서의 enjoy의 의미를 탐색하는 작품이다.	7
D-G	하루키가말하는enjoy의의미-화요일의여자들	Roman	.	그러나 enjoy에만 하루키가 이야기를 다루는 범주가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 화요일의여자들 에 실린 수많은 단편들 속에서, 다채로운 소재들과 주제들이 등장하며, 그것들은 우리의 일상을 꿰뚫고 들어온다.	8
E-I	1973년의핀볼-노르웨이의숲	Roman	.	보다 서사적이고 활동의 범위가 넓고, 오컬트와 환상, SF, 하드보일드 짬뽕이라는 계통을 타고서 씌여진 글들이 C,F,J,K,L,M 등이라면, B,E,I까지의 계보는 리얼리즘적이고, 서정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 계통의 그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노르웨이의숲 이다.	9
F-J	댄스댄스댄스-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원더랜드	Roman	.	환타지 및 모험 여정의 작품으로서, 두 작품은 하나의 울타리를 상대적으로 이루게 된다.	10

F-K	댄스댄스댄스-언더그라운드	Roman	현대인 안에 내재하는 이중적 자아의 균열감, 어두움의 요소에 대한 고찰의 측면에서 이 두 작품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11
G-H	화요일의여자들-개똥벌레	Roman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강해보이는 현대인들의 내면에 잠재한 아련한 서정적, 감성적 잔상에 대한 단편으로서의 개똥벌레는 하루키적 미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이다.	12
G-N	화요일의여자들-양사나이의크리스마스	Roman	하루키 소설들이 각각 보여준 바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의 유사성을 가진다.	13
H-I	개똥벌레-노르웨이숲	Roman	개똥벌레는 노르웨이숲 의 모티브가 되는 단편이다.	14
H-M	개똥벌레-랙싱턴의유령	Roman	상실의 이미지를 다루는 소재로써 개똥벌레와 유령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 실제로 상실된 것의 잔상으로써.	15
I-J	노르웨이숲-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원더랜드	Roman	하루키 작품들 중에서 현재 리얼리즘 계통의 소설의 최고봉으로서의 작품과 환타지 계통의 소설의 최고봉으로서의 만남. 정상에서 만나다.	16
J-K	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원더랜드-언더그라운드	Roman	어둠 속의 야미구로는 도시의 지하에 흐르고 있는 타나토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언더그라운드 의 모티브의 하나로서 작용되고 있다.	17
K-L	언더그라운드-태엽감는새	Roman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이 도드라져 나오는 작품들이다.	18
L-M	태엽감는새-랙싱턴의유령	Roman	죽음 너머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과 현실의 인물들이 마주하는 내용이 있다.	19
L-N	태엽감는새-양사나이의크리스마스	Roman	오로지 세계 소설 사에서 하루키만이 사용하는 개인기들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20
M-N	랙싱턴의유령-양사나이의크리스마스	Roman	사라져있던 모든 이들이 한곳에 나타나는 내용	21

부차적 설명은 아래에 순차와 **필명**을 달고 적어주세요!

1. **무라카미하루키**는 A의 주제에 당연히 올라야 합니다 주제의 시발점으로서, B, [바람의노래를들어가라](#) 그의 소설의 시발점입니다. 일단은 가벼운 문체와 더불어 바람의 노래에 귀 기울이듯이, 이 게임은 시작됩니다.

A-B : 이 게임 자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다름아닌, 허공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해나아가는 것이며, 가벼움이 중량감과 함께 합쳐되는 분위기를 곧 자아내게 될 것입니다.--Roman

2. E : [1973년의핀볼](#)은 두번째 작품으로서, 아직, 하루키가 어떤 색을 가진 작가인지에 대한 평판이 모호하게 느껴질 시점에 거하고 있다.

B-E : [바람의노래를들어가라](#)와 함께 묶인 단행본이 자주 나오게 되는 것처럼, 상당히 닳은 색조와 등장인물 자체의 아주 담담한 성격,

그리고, 문체의 일관된 분위기와 니힐리즘의 분위기가 가시지 않는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Roman

3. C : [양을둘러싼모험](#)은 3번째 작품으로서, [무라카미하루키](#)는 본격적으로 이 작품부터 전업작가 전선에 뛰어들게 되고, 자신의 색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지니게 된다.--Roman

B-C : [바람의노래를들어라](#)와 동종의 시간 배경, 인물, 캐릭터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상 그 스토리라인에 있어서는, 앞서 두권으로부터의 파격을 지니고 있다. 이후부터, 하루키 소설이라하면, 일상으로부터의 모험과 도회적 방향, 몽상과 현실을 오가는 오컬트, SF적 요소와 권력에 대한 염증, 기호화된 도시 문명에 대한 은근슬쩍 저항을 담은 소설로 보이게 된다. '양'이라는 영물은, 이 작품 속에서 도덕적, 혹은 윤리적 판단을 일소한 맹목적 권력욕과 확장에 대한 시대불명의 탐욕을 상징화하고 있다. --Roman

4. A-C : 하루키라는 작가의 성격, 그의 쓰는 스타일 자체에 대한 진지한 의견이 나오는 시점을 바로 [양을둘러싼모험](#)으로 보는 것은, [바람의노래를들어라](#)의 서정적인 느낌, 또는 사소설 스타일의 글이 분명히 보다 대중과의 공감과 연결고리를 확장시킨 글로 씌여졌기 때문이다. 하루키는 무국적성과 그 풍부한 대중성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비난 받고 있지만,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너무 진지한 작가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하루키는 소수의 문학 애호가들의 편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젊음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편이었고, 그 면에서, [양을둘러싼모험](#)은 일종의 본격적인 캠페인처럼 느껴진다.--Roman

5. D : [하루키가말하는enjoy의의미](#)

A-D : 대중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술 그자체에 맥락에 지나치게 깊이 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할 수 있다. 하루키는 금속주의적 작품의 균형감도 지니면서, 동시에 대단히 쾌락주의적이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보다 의미있는 쾌락이며, 그런 의미에서, 하루키의 작품을 이해하는데에는 [하루키가말하는enjoy의의미](#)가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된다. 예술적 완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글과는 다른, 이른바 대중적인 글을 쓰고 있다.--Roman

6. C-F : [양을둘러싼모험](#)(82년작) 다음에 실상 씌여진 작품은 [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워더랜드](#)(85년작)와 [노르웨이의숲](#)(87년작)이었지만, [댄스댄스댄스](#)(98년작)가 바로 그 스토리를 잇고 있다. 물론, 다루고 있는 주제의 측면은 충분히 성숙하고 변화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사랑이라는 의미와 맹목적 권력욕과 확장욕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극단적인 양면성, 그 균열감에 대한 엽기적이면서도 환상적인 내용을 담은 스토리가 펼쳐진다. 스케일이 확장되고 변화한 시대에 대해서도 하루키의 감각이 공명하듯이 울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로드무비와 SF 그리고, 서스펜스가 담긴 하드보일드적인 요소들, 오컬트한 마력을 사워받듯이 느낄 수 있다. 일상의 공간성이 일순 확장된다.--Roman

7. D-E : [1973년의핀볼](#)은 그 현시대의 우리 앞에 우리를 함정에라도 빠뜨리듯 몰입시키는 기계적이고 끊임없이 소모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아주 고풍적인 게임기를 우리 앞에 내민다. 핀볼이라는 상징화된 쾌락의 수단에 몰입했던 것은 또한 우리의 또다른 모습이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enjoy의 의미를 찾도록 이끄는 것처럼 보인다.--Roman

8. G : [화요일의여자들](#)

D-G : 하루키가 다루는 소재들은, 상당히 작은 것이면서도, 대단히 큰 것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으로 파급되는 바가 많은 이야기들이 되곤한다. 일종의 [군자](#)적인 사유체계를 갖춘 사람처럼 보인다. 작은 단편의 내용이 결국에는 확장되어서 장편의 기초를 이루게되며, 디테일이 상당수 생략되어도, 작품 자체에 흐르는 모종의 단단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러한 집필 방식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각각의 단편들이 말하는 것들은 같은 것들도 물론 상당량 있으나, 상당히 많은 방향으로 그 관심사가 고루 분산되어 있다. 현대 사회에서의 enjoy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그의 다양한 단편 세계 속에 다량으로 흡수되면서 동시에 그 세계가 그 안에 포함되는 필요충분에 가까운 조건이다. 물론, 그것은 소설 자체가 내재하는 필수조건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Roman

9. I : [노르웨이의숲](#)

E-I : [바람의노래를들어가라](#), [1973년의핀볼](#) 그리고 [노르웨이의숲](#)까지의 작품들은 땅에 발을 항상 제대로 디디고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속에는 오컬트나, SF, 판타지의 요소가 강조되거나 남용되고 있지 않으며, 현실의 세계 속에서 같은 감각으로 세계를 느끼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이 나온다. 또한 상실과 일련의 니힐리즘이 버무려진 작품을 일관되게 바라볼 수 있으며, 연애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이 타 작품들에 비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노르웨이의숲](#)은 비교적 리얼리즘에 기반을 두고 씌어진 하루키의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매력도와 문학적 완성도와 최고의 마케팅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있다.--[Roman](#)

10. J : [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원더랜드](#)

F-J : '도시,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단편으로부터 파생된 장편인 [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원더랜드](#)는 그 작품성과 성취된 완성도의 면에서 문단과 독자로부터의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모험과 환타지적 요소가 극대화된 이 작품은 [댄스댄스댄스](#)와 더불어서 이 계열의 하루키 소설의 역작으로 서로 동위의 위치를 지닌다. 단, [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원더랜드](#)는, 그 파격성과 작가 자신의 역량을 넘어선 작품이었다는 면에서 하루키의 다른 작품들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구분되는 상당히 이종교배적인 작품이다. SF의 요소가 보다 더 극명하게 가미되고, 스텔과 서스펜스가 다른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대화되고 있다.--[Roman](#)

11. K : [언더그라운드](#)

F-K : [댄스댄스댄스](#)에서는 고혼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아주 외면상 차밍(Charming)한 인물의 내면에 존재하는 깊은 골이 파진 이중적 자아의 균열감은 결국 메이, 키키에 대한 살인행위라는 폭력으로까지 파급된다. [언더그라운드](#)는 종교집단의 극단적인 독가스 살포 사건을 통해서 이 이중적 자아의 균열감을 매우기 위한 폭력의 모습을 르포형식의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
[Roman](#)

12. G : [화요일의여자들](#)

H : 개똥벌레

G-H : [화요일의여자들](#)은 하루키의 단편 중에 일련의 중요성을 갖는 작품들을 다량을 묶어낸 단편집이다. 개똥벌레는 이 작품집에 속해있는 하나의 단편으로서, 하루키가 차후에 자신의 소설들을 통해서 쓰다듬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 속에 잔재하는 상실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작품이다.

13. N : [양사나이의크리스마스](#)

G-N : 종합 단편집으로서의 [화요일의여자들](#)은 일종의 팬서비스 차원에서 씌어진 [양사나이의크리스마스](#)에 나오는 하루키 소설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 돌아가면서 한차례씩 나오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루키 소설들의 모티브들이 한차례씩 보여지는 것과 닮은 바가 있다. --[Roman](#)

14. H-I : 개똥벌레는 [노르웨이의숲](#)의 모티브가 되는 단편으로 알려져있고, 하루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물론, 모티브가 되는 노래로서의 [Norwegian Wood](#) 는 어디까지나 뉘앙스와 이미지의 측면이다.

반딧불이 날아간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반딧불은 뭔가 생각난 듯이 문득 날개를 펼치더니, 그 다음 순간 난간을 넘어서 희미한 어둠 속에 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라도 하려는 듯, 급수탑 옆에서 재빨리 원을 그렸다. 그리고 그 빛의 선이 바람에 스며드는 것을 지켜 보기라도 하듯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윽고 동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반딧불이 사라져 버린 뒤에도 그 빛의 흔적은 내 안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었다 눈을 감은 두터운 어둠 속을, 그 가녀린 옅은 빛은 마치 갈 곳을 잃은 영혼처럼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방황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한 어둠 속에 몇 번이고 손을 뻗쳐 보았다.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그 조그마한 빛은 언제나 나의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 안타까운 거리에 있었다.-[노르웨이의숲](#)페이지에서 개똥벌레 관련부 일부 발췌

--[Roman](#)

15. M : 렉싱턴의 유령

H-M : 개똥벌레는 이미 도시 속에서는 사라져버린, 감성과 추억, 중요한 그 무엇의 사라지고, 꺼져버리기 쉬운 것을 상징화하는 소재이다. 렉싱턴의 유령은 죽은 사람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이 불러일으키는 상실된 잔상의 회복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

16. I-J :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구도를 일관되게 잃지않는 방식의 작품의 계보 상에서 [노르웨이의숲](#)은 하루키의 작품들 중에 현재 최고의 작품이며, [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원더랜드](#)는 현세계와 환타지의 세계를 숨가쁘게 오가면서 정적 구도와 동적 구도가 병행되는 작품으로서 이 계통 계보상의 최고작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Roman](#)

17. J-K : [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원더랜드](#)에서 하수구를 통해 도망하고 있는 주인공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고, 그 존재감만이 느껴지는 살육의 괴물인 야미구로들이 묘사된다. 지하 속에 잠재하고 있는 죽음의 냄새와 공기, 그것은 어느순간엔가 움진리교의 사린가스 살포사건으로서 이 지상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언더그라운드](#)에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가해자의 모습은 움진리교 자체라기 보다는 바로 이 도시의 지하 속에 내재된 죽음의 공기, 또는 야미구로로 상징화되는 어두움의 모습이다.--[Roman](#)

18. L : [태엽감는새](#)

K-L : [언더그라운드](#)는 일본 사회가 언제라도 이 도시 속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예상치 못한 재해등에 대한 방비나 예방, 옹의주도한 주시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태엽감는새](#)는 다름아닌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일본 사회의 움직임, 그리고 마스크를 통해서 벌어지는 정치적 속임수에 대한 이성적, 감정적 흥분과 분노, 비판을 다루고 있다.--[Roman](#)

19. L-M : 물론 [양을둘러싼모험](#)부터 오컬트적인 요소는 여러 소설 속에서 반복된다. 그러나, 렉싱턴의 유령은 [태엽감는새](#)에 나오는 시나몬과 이스터의 가장의 모습이 심장을 잃어버리는 씬과 같이, 연인이나, 친구가 아닌, 친족 계보 상의 인물들이 나타나는 내용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가진다.--[Roman](#)

20. L-N : 하루키의 개인기가 나타나는 부분은 [태엽감는새](#)상에서 아래와 같이 나타났었다.

마치 전통적인 그의 장기인양, 부인이 설명없이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펼쳐진다. 그리고선, 부인을 찾아 떠나는 모험... 양을둘러싼모험에 비해서는 짝조여지는(임팩트한) 감각이 떨어지고, 상실의시대나 "청춘3부작"의 나머지 두권, 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원더랜드에서 절묘하게 나타난 폴리포닉적 작법도 이곳에선 효력같은 것 만들어내지 못한다. 댄스댄스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영매적 기질을 지닌 어린 소녀(이사람 지금 유아성욕자극하는거야 뭐야?)가 등장하지만, 이전의 신선한 감각은 잃어버렸다. 1973년의핀볼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 쌍둥이 여자가 차례로 꿈과 현실에서 댄스댄스댄스처럼 맥락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달려붙어 섹스도 하지만, 노몬한 전투의 실상을 마법사같은 할아버지의 음색을 빌어 여러차례 이야기 해내지만, 시나몬이라는 향신료의 이름으로 사람이름도 만들어내고, 정말로 어떻게든 제대로 만들어볼려고 애쓰고 있는 무라카미하루키의 고전분투가 느껴지는 듯하다. 단, 담고 있는 메시지의 의미는 스토리를 위한 장치들의 차원은 넘어서 있다.

--[Roman](#)

[DeleteMe](#) 이곳에, [사과나무씨가](#) 적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태엽감는새](#)페이지로 옮겨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oman](#)

21. M-N : [양사나이의크리스마스](#)에서 한자리에 하루키 소설 속의 장치적 요소들이 되는 인물들이 전부 모여든다. 렉싱턴의 유령에서 유령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만의 향연을 벌인다.--[Roman](#)

-- [노스모크](#) 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08

무라카미 하루키(노스모크에서 퍼옴)

www.no-smok.net 로부터 펴음.

☐ 일본의 소설가.

- 1. [소개](#)
 - 2. [작품들](#)
 - 1. [장편](#)
 - 2. [단편, 수필, 기타](#)
 - 3. [인터뷰](#)
 - 1. [1995년 중앙일보 인터뷰](#)
 - 2. [미국테러사태에 대한 하루키의 인터뷰](#)
 - 4. [평론](#)
 - 1. [하루키, 죽음의 건담\(김정란\)](#)
 - 2. [기타 평론모음\(장석주, 남진우, 박유하\)](#)
 - 3.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이 사건을 이야기하다](#)
 - 4. [\[하루키가말하는enjoy의의미\]](#)
 - 5. [하루키의 전략](#)
 - 5. [하루키와 전공투](#)
 - 6. [초평](#)
-

소개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대학 1학년 때 읽은 '상실의시대'의 매력적 흡인력이 나를 하루키에게로 이끌었다. 때마침 붙어닥친 영화 열풍 속에서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을 보며 이걸 하루키의 영화적 현신일거라고 생각하며 전율하기도 했고.. 강한섭 교수가 서울예전(요즘은 서울예대) 면접에서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 왕가위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있으면 '애도 또 왕가위래'하면서 떨어뜨렸다던가. 그러나 하루키에는 '애도 또 하루키'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위의 기억 속에서, 양사나이의 세계 속에서, 출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깊은 우물 속에서, 하루키는 일상의 폭력적 질서 속에서 무시당하는 낮은 속삭임에 귀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권한다. 그 귀기울임이 하루키의 주인공들을 도시의 쾌적한 문화 소비자에서 기존 질서에 대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저항자로 위치 변환시킨다. --Khakii

작품들

장편

- [바람의노래를들어라](#)(1979)
 - "글쎄, 지겨워졌으니까겠지 뭐. 하지만 말야, 나는 나 나름대로 버텼거든.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말야. 자신을 생각하는 것 만큼 남도 생각했었고, 덕분에 순경한테 맞기도 했지. 하지만 말야, 때가 되면 모두 자기의 원래 자리로 되 돌아가지. 나만 돌아갈 곳이 없었다는 이야기야. 의자뺨기 게임 같은 것이지."
- [1973년의핀볼](#)(1980)
- [양을둘러싼모험](#)(1982)
- [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원더랜드](#)(1985)
 - "내게는 나의 책임이란 게 있어."라고 나는 말했다. "나는 내가 내 멋대로 만들어 낸 사람들이랑 세계를 뒤에 팽개쳐 두고 가 버릴 수는 없어. 네겐 미안하다고 생각해. 정말 면목이 없고, 너와 헤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돼. 여기는 나 자신의 세계인 거야. 벽은 나 자신을 둘러싸는 벽이고, 강은 나 자신 속을 흐르는 강이고, 연기는 나 자신을 태우는 연기인 것이야."
- [노르웨이의숲\(상실의시대\)](#), 1987)
 - 반딧불이 날아간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반딧불은 뭔가 생각난 듯이 문득 날개를 펼치더니, 그 다음 순간 난간을 넘어서 희미한 어둠 속에 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라도 하려는 듯, 급수탑 옆에서 재빨리 원을 그렸다. 그리고 그 빛의 선이 바람에 스며드는 것을 지켜 보기라도 하듯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윽고 동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반딧불이 사라져 버린 뒤에도 그 빛의 흔적은 내 안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었다 눈을 감은 두터운 어둠 속을, 그 가려진 옅은 빛은 마치 갈 곳을 잃은 영혼처럼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방황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한 어둠 속에 몇 번이고 손을 뻗쳐 보았다. 손가락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그 조그마한 빛은 언제나 나의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 안타까운 거리에 있었다.
 -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르고 보니까 아 이것 역시 나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들이란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거든요, 국민 학생 같다니, 강제 수용소의 죄수 같다니, 그런 소리만 하지 뭐예요? 어쩌서 남자들이란 머리가 긴 여자를 좋아하죠? 그건 꼭 파시스트 같아요. 정말 시시하다구요. 어쩌서 남자들이란 머리가 긴 여자가 우아하며 마음이 상냥하고 여성답다, 그러는 걸까? 난 말예요, 머리가 긴 야비한 여자를 2백 50명쯤은 알고 있어요, 정말."
- [댄스댄스댄스](#)(1988)
 - "한 바퀴 돌아 어디로 돌아왔어요?"
"현실로" 하고 나는 말했다. "꽤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현실로 돌아왔어. 여러 가지의 기묘한 것들 속을 통과해 왔어. 여러 사람들이 죽었어. 여러 가지가 상실되었어.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이 해소된 건 아냐. 아마 혼란은 혼란스러운 대로 존속되어 가리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느껴. 나는 이로써 한 바퀴 돌았다는 걸. 그리고 여기는 현실이야. 나는 한 바퀴 도는 동안 기진맥진하여 녹초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든 계속 춤을 추었지. 제대로 스텝을 밟았어. 그래서 이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 [국경의남쪽태양의서쪽](#)(1992)
- [태엽감는새](#) 연대기(1994)
- [스푸트니크의연인?](#)
 - "나는 그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멋진 여행의 동반자이지만 결국 각자의 궤도를 그리는 고독한 금속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은 멀리서 보면 유성처럼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각자 그 틀 안에 갇힌 채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죄인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두 개의 위성이 그려 내는 궤도가 우연히 겹쳐질 때 우리는 이렇게 얼 굴을 마주볼 수 있는 거죠. 또는 마음을 합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잠깐, 다음 순간에는 다시 절대적인 고

독의 틀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완전히 연소되어 제로가 될 때까지 말이에요."

- [해변의카프카](#) 번역되어 판매중 [작품 홈페이지](#)

단편, 수필, 기타

- 빵가게 재습격
- 개똥벌레,헛간을 태우다
- 코끼리소멸
- 패밀리 어페어
- [언더그라운드](#)
-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
- 렉싱턴의 유명
- [화요일의여자들](#)
- [양사나이의크리스마스](#)

인터뷰

1995년 중앙일보 인터뷰

〈일본신세대작가현지인터뷰〉1. 무라카미 하루키

90년대들어 일본소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소설이 가장 많이 번역된 나라가 한국이며 외국 현역작가들중 국내에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작가도 일본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젊은 작가들까지도 하루 키의 문체를 흉내내고 있다.

하루키의 작품은 장편에서부터 단편집, 여행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작품이 번역돼 있으며 수만부에서 수십만부까지 꾸준히 팔리고 있다. 때문에 출판사들은 하루키의 이름만 갖고도 앞다퉈 책을 낸다. 최근엔 발빠른 한 출판사가 하루키의 전작품을 독점계약,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루키 소설의 성공은 국내 소설소비취향의 변화를 단적으로 암시한다. 80년대 후반부터 다국적 대중문화의 세례를 받고 성장한 세대가 소설시장의 주소비층으로 급격히 부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현실」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작가들은 이 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상태를 20년 앞서 비슷한 사회변화를 겪은 일본의 소설들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흔히 「신세대 문학」으로 불리는 이들 소설은 자국의 특수한 현실보다 후기자본주의사회의 도시적 삶의 모습을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문화상품의 이미지를 매개물로 해 그리기 때문에 국가간의 파급력이 크다.

실제로 현재 국내 젊은 작가들의 작품에는 일본소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또 앞으로도 한국사회가 후기자본주의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본이 20년 전에 겪었던 것과 유사한 사회변화를 겪는다면 문학 또한 닮은 꼴로 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일본 「신세대문학」의 추이를 점검해보는 일은 우리 문학의 방향을 가늠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듯 싶다. 이런 취지에서 일본 「신세대문학」을 이끈 대표적인 작가들,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류, 시마다 마사히코와 처음부터 신세대문학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작가 마루야마 겐지와와의 인터뷰를 준비했다. 9월1일부터 10일까지 일본 현지에서 진행된 인터뷰기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 작가가 공통적으로 「이제 역사에 눈을 돌릴 때」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가 80년대를 거치면서 역사에 치여 개인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 일본은 고립된 도시의 원룸에서 나와 다시 광장을 탐색하고 있는 인상이었다. 편집자註? 도쿄(東京)에 도착한 9월1일은 하루키의 신작 「태엽 감는 새」(원제: 태엽 감는 새의 연대기)가 나온 며칠 뒤였다. 시내지도

사기 위해 들른 한 조그만 서점에 「무라카미 하루키 『태엽 감는 새의 연대기』 완결판 출간」이라는 선전문 구가 창문에 붙어 있었다.

책이 잘 나가느냐고 서점주인에게 물어봤더니 「하루키 책은 나온 다음날 바로 베스트셀러 1위다」고 답했다.

어떤 책이든 서너달 안에 1백만부가 팔린다는 하루키의 인기가 피부에 와 닿았다.

하루키와의 인터뷰는 4일 자택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고급주택가인 아오야마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아오야마 묘지가 있었다. 고급주택가의 근처에 묘지가 있는이 낯선 풍경은 하나의 상징처럼 다가왔다. 문명 의 한 가운데서 죽음보다 더 깊은 상실감을 갖고 살아가는 하루키 소설의 주인공들을 연상시켰다.

초인종을 누르자 하루키가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 집필실로 안내했다. 15평 정도 되는 널찍한 집필실에는 운동용 자전거가 놓여 있어 인상적이었다. 하루키는 실제 나이 마흔여섯보다 10년은 젊어 보였으며 매우 건강해 보였다. 편한 옷차림과 달리 약간 긴장한 듯 보였으며 인터뷰가 진행되는 두시간 내내 자신의 입장을 되도록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89년부터 거의 10년간을 유럽과 미국에 체재하면서 소설을 써 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귀국한 것인가.

▲당분간 일본에 있을 작정이지만 언제 다시 해외로 나갈지 알수 없다. 해외에 있는 것이 소설에 집중할 수 있어 좋다. 일본에 있으면 문단이나 편집자등 사람들과 접촉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상황이 힘겹다.

-효고(兵庫)縣남부 대지진 피해자를 위한 자선 낭독회를 갖는다고 들었다. 사회활동에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랜 해외생활 동안 심경의 변화라도 있느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신을 좀 더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은 미국생활에서 얻은 것이다. 미국은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그 다음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한다. 몇 년간 생활하면서 이런 사고가 정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 한가지 생각의 변화를 가져 온 게 있다면 나이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후반에 학생운동을 체험했다. 이때 받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인간에 대한 좌절감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은 그 당시 생각한 이상들을 다시 한번 다른 형태로 환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신 소설에는 유난히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여성이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70년대 내 주변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다. 그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그런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하지만 내게는 그게 현실이었다. 여자에게 특별히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자를 그럴 때는 매력적으로 그리려 한다. 내가 봐도 호감을 느낄수 있을 만큼.

-당신 소설의 매력을 흔히 정서적 친밀감이라고들 한다. 한 독자로부터 당신 소설을 읽고 나면 술이 마시고 싶거나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굉장히 반가운 소리다. 나는 피지컬하게 독자에게 호소한다. 성적인 장면이든, 음식을 먹는 장면이든 독자가 직접 그 행위를 하고 싶도록 쓴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젊은 여대생에게서 편지가왔다. 『노르웨이의 숲』을 다 읽은 것이 새벽3시였는데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 도둑처럼 기숙사 2층방으로 숨어 들어가 함께 밤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뻐다.

-당신 소설의 독자들은 당신이 연애에 능숙한 사람일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웃음)수줍음을 많이 타기 때문에 여자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한다. 연애는 먼 옛날 얘기다. 결혼한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아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 아내는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70년대에 느낀 환멸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당신 소설의 주인공들은 인간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있는데….

▲내가 그리는 인물은 고도 자본주의사회 도시의 개인들이다. 그들은 고립된 개인이면서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 그들에게 고립은 모멸을 지키는 방식이다. 나는 사람이 모멸을 지키며 교감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다.

이것은 일종의 팬터지다. 이런 팬터지가 현실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젊은 작가들은 팝이나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미국의 대중문화를 소설 속에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당신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국적적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보스턴에 있을 때 한국 평론가를 만나 내가 한국의 젊은 작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웃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된다.

나는 소설을 통해 도시에 살며 개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될 만한 삶의 표본을 제시하고 싶다. 여기에는 보편적인 추상성이 요구된다. 리얼한 생활이 소설 안에 스며들면 추상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배제한다. 문화적 기호들을 많이 사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요즘처럼 문화가 굉장한 기세로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에는 국적성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영어로 소설을 쓰는 일본인 작가가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 영어로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하는 작가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성 속에서 구멍을 파거나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 것 같다. 나는 바깥으로 눈을 돌려 열린 문화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했다. 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던 로큰롤과 같은 문화상품의 이미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정신적 기둥 없이 살아

-앞으로의 작품경향에 변화를 암시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나는 70년대 이후 정신적인 기둥이 없는 시간을 살아왔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시대를 오래전부터 살아온 느낌이다. 앞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태엽 감는 새』에 2차대전중 중국에서의 전투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시도라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관심은 모럴이다. 모럴은 과거부터 내가 가장 몰두한 화두(話頭)같은 것이다. 이 시대는 모럴을 갖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다.

그러나 인간은 모럴 없이는 살 수 없다. 어떤 식으로 모럴을 갖고 살 수 있을까를 쓰고 싶다.

『노르웨이의 숲』도 결국은 모럴에 관한 이야기다. 이 소설의 성적 묘사가 비도적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모럴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다.

***도덕적 생활 힘들어

-전통적인 일본문학 작품보다 미국작품을 더 많이 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소설(私小說, 개인의 체험을 고백형식으로 표현하는 일본 전통소설 양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소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만큼 싫어한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분야의 소설이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편 쓸 때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 체력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술은 가끔씩 마시지만 많이는 하지 않고 담배는 오래 전에 끊었다. 그리고 장거리 달리기와 수영을 규칙적으로 한다. 마라톤 풀 코스도 가끔씩 뛴다.

하루키는 인터뷰하는 동안 줄곧 「모럴」과 「역사」라는 말을 강조했고 80년대 한국 학생운동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 자신의 책이 번역된 출판사에 대해 물어 보았고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 자신이 왜 그토록 인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49년 효고현 아시아 출생.

-75년 와세다대학 영화과 졸업. 대학 재학중 재즈 카페 「피터」 경영. 이 무렵 18세 때 처음 만난 동갑내기 아내 요코(陽子)와 결혼.

-79년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군상지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

-86~89년 4년간 유럽에 체재하며 『노르웨이의 숲』, 『댄스댄스 댄스』 등 집필.

-90~95년 미국 프린스턴대학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일본문학 강의.

-작품으로 『1973년의 핀볼』(80) 『양을 둘러싼 모험』(82)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85)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92) 『태엽 감는 새의 연대기』 (94)등이 있다.

▶ 중앙일보 1995년 09월 19일자 46면

▶ 글 쓴 이 : 남재일 기자

링크만 할 생각이었는데 중앙일보가 1년 이상 지난 기사 열람을 모두 유료화 해버려서 불가피하게 전문을 올립니다. --[PlusAlpha](#)

미국테러사태에 대한 하루키의 인터뷰

[□ 실망스러운 인터뷰](#). 하루키는 이제 미국인이 될걸까?

상당히 재미있는 견해라고 생각되는데,..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그러한지? --[naya](#)

그의 미국테러사태에 대한 견해는 상당부분 옴진리교사건에 대한 견해([언더그라운드](#)에서 표명된)로부터 유추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뉴욕 타임즈](#) 기사 원문을 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지금 [뉴욕타임즈](#)에 가서 [□ 기사검색](#)해보니 기사를 읽으려면 돈을 내라는군요. 2.5불이라는데 그냥 사버릴까요..?) 그러나 옴진리교사건과 미국테러사태를 동렬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뉴욕테러사태에는 옴진리교사건에는 빠져있는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닫힌 회로와 열린 회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들은 훌륭한 문학적 섬세함입니다만, 뉴욕테러사태의 분석에 대해서라면 그에 못지 않게 정치적 섬세함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의 정치적 섬세함이 결여된 문학적 섬세함은 결국 미국 주류사회의 일방주의적 관점을 다소 세련되게 표현하는데 그치고 말았다고 봅니다. --[Khakii](#)

[이슬람](#)원리주의와 미국자본주의의 대치구도로 보는 자체가..... 글썄요. 모든 [이슬람](#)교도들을 과격한 회교주의자로 보는 것은, 한국인들을 모두 유교적 전통의 군사부일체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요즘 지식인들의 글을 보면 미국은 자본주의와 세계질서를 옹호하는 세력이고, [이슬람](#)은 웬지 천박하고 잔인한 이교도라는 이미지로 몰고간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도올 김용옥의 논평도 매우(꽤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뉴욕테러사태에 대해서 그나마 올바른 시야를 갖춘 글은 '에드워드 사이드'교수의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정도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자하](#)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대한 논평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전부이고 보면, 이런 식의 논평이 될 수밖에 없는건 당연한게 아닐까요? 어떤 식으로든 평범(?)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로서는 테러, 폭력과 같은 것들을 결코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대응했던 미국에 대한 비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좋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정말로 미국에서 있었던 그 테러가 회교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인지가 중요하겠죠. 그게 정말이라면, [이슬람](#)세력이 한 짓도 결코 잘한 짓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aya](#)

see also [AmericaUnderAttack](#)

평론

하루키, 죽음의 견담(김정란)

김정란, <하루키, 죽음의 견담; 타락한 시대의 제의로서의 글쓰기>, 세계의 문학 1992년 봄호 [AnswerMe](#) 파일이나 링크 가지고 계신 분?

기타 평론모음(장석주, 남진우, 박유하)

[□ 평론모음](#)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이 사건을 이야기하다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이 사건을 이야기하다](#) --Roman

[하루키가말하는enjoy의의미](#)

하루키의 전략

[이화수용재구축](#)

하루키와 전공투

하루키 작품을 처음 읽은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하루키의 다른 책들을 뒤적거리면서도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다. 그의 문학적 약력을 기술해놓은 부분을 보면 항상 [전공투](#) 이야기가 등장한다. 당시 대학생이던 하루키가 과격한 운동권에서 허무를 느꼈다고 하는데('상실의 시대'에도 이러한 운동권들을 비꼬아 서술한 부분이 있다) 책마다 기술해 놓은 것은 하루키가 마치 운동권이었는데 거기서 허무를 느껴서 그의 글에는 허무가 묻어난다..는 식인데 그의 약력 어디를 보아도 그가 학생운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도대체 어떤 것이 사실일까? 그는 시대에 만연해 있던 그런 상황들을 보고 허무에 빠져든 것일까? --[붉은바람?](#)

촌평

중학생으로서 이해하기 힘들겠구나..라는 말에 대해서 느낀 반발심이랄까..그런 것으로부터 읽게 되었다. 도대체 누구와 비교해서 무엇과 비교해서? 라고 묻고 싶었지만 책을 읽다가..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한 가치관의 혼란이라던지 우려에 대한 소리였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무언가를 안다고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가끔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왠지 공감하고 있다고 느낀다. 어쩌면 그의 글에서 그의 생각을 닮아가려 했음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Einfach84](#)

상실의 시대를 봤는데, 주인공이 여자 만나러 가면서 무슨 브랜드를 입고 무슨 브랜드를 걸치고 무슨 브랜드를 들고 나간다, 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중요정보'만 담긴 묘사에 턱이 떨어지고 말았다. '가볍다'가 아니라 이건...그냥 '추종한다'에 가까운듯. --[아말감](#)

하루키의 소설에서 옷의 브랜드에 대한 묘사같은 것들이 지구화-미국화된 첨단 소비사회의 '기호의 쾌락'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호 가치에 대한 추종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Khakii](#)

난 책이란 글의 구성이나 문체가 어땠고, 무언가를 제시했다 않했다를 떠나서 책을 읽는 동안 읽는 사람이 무얼 느낄 수 있게 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적어도 와타나베와 나오코.. 미도리.. 그 이외의 모든 인물들은 이 책을 읽을 당시의 막 23살 남짓이었던 시절의 나와 친구..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었다. 인물이 떠올리는 말과 생각.. 마지막의 공허함 마저도 이 책을 읽을 때는 언제라도 그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cavin](#)

20대 초반에 잠시 읽고 지나가는 책이 아닐까. 이제는 절대 쳐다보지 않는, 그런 느낌의 감수성 --[자하](#)

난 [상실의시대](#) 이 책에 대한 사연이 있다. 원제가 [노르웨이의숲](#)인 책이었다. 도서관이 전산화되지 않았던무렵 카드식 책대여를 하던 중 노르웨이숲이란 책을 골라냈다.

이것 저것 할것 없던 대학생활속에서 그저 괜찮은 책 하나 찾아내서 읽어보게 낙이었던 시절에 골라낸 그책은 초반의 후~~복잡하고 난해한 부분들을 읽다보니 더 이상 손이 가지 않게 되었고 그대로 반납. 1학기가 지나고 다시 그 도서관에 들릴 일이 생겨 지난날 읽었던 그 책을 다시 대여하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앞부분만을 읽다말았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책이 되었다. 그러던중에 강의실의 책상에 둔 책을 분실했고 다시 보기싫었던 책을 사서 반납하게 되었다. 애플단지같은 그책 오기가 생겼다. 2권을 사서 한권은

반납을 하고 한권을 보기로 정했다. 이후 조금씩 읽어 가면서 핫..이런..이런..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나의 생활 불투명하기만한 미래 물론 사랑에대한 단상등등 책속에서 나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거의 그 책은 10번이상 되었었다. 지금까지 주인공의 책임기 습관과 같이 난 위에 [cavin](#)분과 비슷하게 그대로 느꼈으면 한다. 사회상 전공투 그런 것들은 나에게에는 복잡하다. 난 그대로 책을 느끼고 싶다. 난 지금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한번씩 권해보고있다.--[gonggal?](#)

[무라카미류](#)가 각광을 받는 것보다는 하루키가 낫다. --[zephid](#)

그건 책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본다.--[Roman](#)

멋모르던 대학 1학년때 하루키의 소설을 주욱 봤었죠. 머가 먼저 모를 인생에 새로운 지표를 주었다고나 할까? 소설에 반해서 한동안 상실의 시대의 주인공처럼 행동하려 한적도 있었습니다. 하루키의 소설들은 20대 초반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는것 같습니다. --[newtype](#)

새벽에 잠이 안오길래 TV피플을 봤습니다. 자극적인 습작이네요. 상실의 시대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갔지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던 [세계의끝과하드보일드윈더랜드](#)에서는 확실히 묵직한 충격을 받았죠.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걸 보면 헛읽었나 봅니다. 자극적이라는 것 하나만은 분명한 것 같네요. 어렸을 때 하루키를 봤다면, 나이 들어서 다시 읽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덜 익었던 예전에 대한 조소가 됐던, 아니면 새로운 각성의 장이 됐던 말이죠. --[Joana](#)

한때는 나도모르게 상당히 깊게 빠져있었는데 어느순간에 깨닫게 되었죠. '그는 그, 나는 나일뿐' 이라고... 과연 100년뒤에도 이렇게 칭송받는(?) 작가로 이름이 기억될런지? ;p 장석주, 하재봉, 장정일, 박일문... 그 사람들의 직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 ... ㅎㅎ
AnswerMe --[nobody](#)

작가가 100년후의 사람들에게까지 칭송받아야 마땅한 것일까?

동시대의 나같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줬다면 그것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키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아무도 하루키처럼 글을 쓰지 않았다.

다른것들도 마찬가지로지만 하루키가 진부한것이 아니라 하루키를 둘러싼 담론들이 무척 진부하다. --[Pulp](#)

진부한 것들도 게임으로 묶으면 좀 재미있어지는 듯하네요.^.^; See Also [ConnectItPlayHaruki](#) --[Roman](#)

2003년 4월 26일 현재 동경에 두달 째 체류하고 있는 중이다. 주말이면 책방에 가서 책을 사온다. 자주 가는 서점은 가까운 시부야의 북 퍼스트. 지하 1층 지상 5층인가 하는 중형 건물의 거의 대부분이 책으로 채워진 이 큰 서점 입구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들이 그야말로 '깔려' 있다. 데뷔작부터 근작까지, 수필, 콩트, 여행기, 소설, 심지어 영문 번역본도 전 권 있는 것 같았다. 아마 얼마 전에 전집이 나오고 '해변의 카프카'라는 신작 소설이 나왔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취한 공세 전략이겠지만 솔직히 씁쓸했다. 마치 블랙 버스터 영화 개봉을 앞두고 그 영화 포스터 만으로 도배를 한 지하철을 보는 듯 했다. 그런 광고 전략이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덩만은 대부분의 글 쓰는 사람들이 너무 돈을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소에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이 '서점 앞 책 도배'는 정도를 넘어섰다는 기분이 들었다. 이 소란 때문에 도리어 하루키는 마이너스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한다. --[영만](#)

음...무라카미 하루키는 보통 짧은 단편을 긴~ 장편으로 쓰는 연작을 많이 하더군요..

쩍...일본의 성격이 그런것인지...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느낌이 들고.....

하루키가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다지만...왠지 너무 일본적이라는 느낌이.. -- [범두부](#)

한창 뜰 때의 하루키가 비난 당하던 중요한 이유들중에 하나는 그의 글이 국적을 잃어버린 무국적 소설같다는 것이었습니다(등장 인물 이름만 바꿔놓으면, 어느 나라 소설이라 불리워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현재는 그마저도 일본적으로 보일만큼 하루키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듯 하며, 세상의 모습도 그만큼 달라져왔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하루키가 글을 써 온지 20여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Roman](#)

09

바람의노래를들어라

www.no-smok.net 으로부터 퍼옴



이 책으로부터 하루키 신드롬이 비롯되고 있다. 이것이 거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세 중후반에 이르러서, 카페 주인으로서, 자신의 말그대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생활인**답게 살고 있었을 때, 야쿠르트 스왈로즈라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꽤 오랜 세월만의 승리를 볼 수 있었고, 그 와중에서, 자신이 자기자신만을 위한 글을 써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쓴 소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군상 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이 책으로 하루키는 일약 문단의 스타덤에 오르게 된다.

그의 문장법 등등의 사생활 이야기를 듣다보면, 이 소설을 쓰기까지의 과정에서, 중간에 영어로 글을 썼다가, 다시 일본어로 번역하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의 소설은 그 시작부터 무국적성이나 지나친 대중성이라는 것으로 재단받거나 혹 평받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시도 속에서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내재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다.

도시문학이라 불리울 정도로 이 소설 속에서는 도회적 감각과 도시를 기호화 하는 사물이나 느낌 분위기의 묘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솔직히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멋지게 벌어진다. 그가 도시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하루키 작중 인물은, 방파제에서 이렇게 외치기도 한다.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곧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이미, "나"라는 일인칭 시점의 소설은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문체와 더불어 진행된다. 그 속에서 인물들은 끊임없는 상실감과 고도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무력한 자신에 대한 감상 속에서 헤메인다. 그러나 마냥 약하게 헤메이는 것은 아니다.

"취"와 "나"가 드나들던 J's 바는 김동률의 노래로 나와 있을 정도이다.

이 글속에서, 하루키의 주인공 "나"는 계속해서 연거푸 맥주를 들이키고, "취"와 더불어, 상당히 재치가 넘치는 대화를 나눈다. 하루키의 정체가 과연 문체를 기반으로 하는 감수성 예민한 순문학 소설가인지, 아니면, 다른 정체를 지닌 괴짜적인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 시기에 내려지지 않았다.

문학사상사의 "하루키수첩"에 보면, 취의 나이와 "나"의 나이가 공교롭게도 일치하게끔 장치를 깔아둔 부분이 있다고 한다. 1948년생, 12월 25일....

인간사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바람이 스쳐불어지나가는 것처럼 흘러 지나간다. 그 많은 인물들과 그 많은 이야기들은 모두 과거로부터 온 소리이자 과거로부터 우리에게로 파생되어 온 것이다. 인간의 존재를(레종되피르를) 성기로나, 수치적인 정보로 환산하여서 규명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은 모두 그 끈질기게 알고자 해도 잘 알아낼 수 없는 인간의 의미에 대한 모색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라는 허깨비가 이 역사나 사회라는 시공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한 사라져가는지 알기 위해서, 바람이 흘러 지나가는 그 노래에 귀기울여 보아야 하는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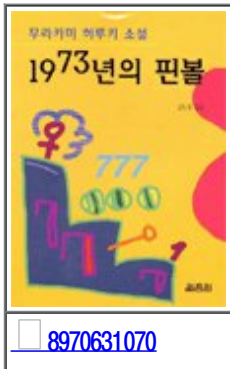
하루키의 에세이를 보다보면, 그의 짹막한 농담이 다시 끼어든다. 그는 돈도보리라고 하는 외곽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만약,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글을 썼다면, "돈도보리에 부는 바람"이라는 정도의 소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한다.

--Roman

10

1973년의핀볼

From www.no-smok.net



[바람의노래를들여라](#)과 이 소설, 그리고 [양을둘러싼모험](#), 이 세가지를 묶어서 하루키의 청춘 삼부작이라고 일컫는다. 이 소설 속에서도 아직 하루키는 문체와 감수성으로 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208, 209라는 셔츠를 입은 두 쌍둥이 여자와의 동거, 그리고, 핀볼기계를 찾아서 끊임없이 헤메이는 주인공 "나"는 아직도, 현대고도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외감, 그리고 어느정도 이상의 패배감과 절망을 느끼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핀볼 기계에서 얼마나 많은 득점을 올려내는가 그 자체에 몰입하는듯 하다가, 결국에는, 그 기계 자체에 대한 자신의 몰입의 허무성을 깨달아간다. 그것은 자신을 축소하고 위축시키는 일이었음을 다 늦게서야 깨닫는다.

핀볼과 핀볼 기계에 몰두하는 "나"라는 인물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각자의 질문이 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성립되는가가 독자들의 관건이 되지 않나 싶다.

역시 이 글 속에서, "쥐"가 등장한다. --[Roman](#)

[책분류 소설분류](#)

11

1Q84를 읽으면서.....

문학동네 [무라카미 하루키의 IQ 84 1편 / 2편 / 2권세트 판매

1

최저가격 13,320원

제조사 7871jnj

카테고리 유아동/출산

간만에 나온 하루키의 신작 1Q84를 읽고 있다. 내가 쓰다쓰다 완결을 못맺은 털없는새라는 소설에 나온 아이디어 하나가 아주 제대로 형상화되고 있는 스토리를 보게 되었다. 설마 내 소설을 하루키가 와서 보고갔을리는 없고, 아마, 이런 아이디어는 여러 곳에서 그 누구로부터라도 나왔을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그러고나니 그나마 쓸 일도 없었던 동기가 사라진 상태가 완전히 0의 의욕으로 변화하였다.

아이디어라는 것에는 독점권이 없다. 그리고 그가 그 아이디어를 사용한 방법을 보고나니, 지식과 재능있는 자가 능숙하게 아이디어를 다루는 것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잡고 뽕뽕 얼어 헤메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갖고 있어서는 변변치 못한 것이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는 훨씬 나은 일인 것이라고 믿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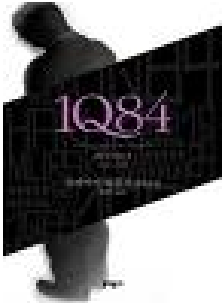
내가 소유하고 사랑해서는 행복하게 못해줄 사람을 보다 행복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낸다는 스토리. 참, 바보스럽지만, 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스토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다. 가난함에 미안해서 보냈던 사랑했던 그 언젠가의 사람처럼 나의 빈곤한 사고 안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부잣집 아들내미에게 보내듯 이제 떠나 보내려 한다(물론, 하루키가 부잣집 아들내미라는 소리를 하자는건 아니다). 털없는새의 창작을 솔직하게 포기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동안 미워했던 다음 블로그와도 하루정도 화해를 해본다. 하루키나 다음 블로그 관련자들이나 둘 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겠지만.....

1Q84에서 하루키는 문단을 조소하면서 동시에 사이버화된 종교 권력과도 투쟁을 하고 있다. 그 나이가 되도록 열정적으로 지혜롭게 싸우는 그가 참으로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한편의 책을 읽어주는 독자로서 그에게 도움을 줄 뿐이다. 또한 누군가의 검색에 걸려 스포일러 하나쯤 노출해주는 길잡이로서.

현재 나의 정체성은 기훈의 비즈니스맨일 따름이다.

12

1Q843권을 읽으며...다보기도 전에...글한편(스포일러유의)



1Q84 3

저자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양윤옥 옮김
 출판사 문학동네 펴냄 | 2010.07.27 발간
 카테고리 소설
 책소개 그가 이번에는 두 남녀의 아련한 첫사랑 이야기인 동시에 '1Q84'를 헤쳐나가며 겪게 되는 환상적인.....

1Q84 1권과 2권을 이미 금년 초에 후다닥 읽어버린 뒤였지만, 뭐라고 할까 남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몰입해서 끝까지 읽었고 이전의 작품들을 읽었을 때와도 비슷하게 마치 하루키라는 니코틴이 내 몸속에서 뭔가 하루키적인 중독을 지속시키는 대상을 기다리다가 속 빨아들었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이 내용들에는 충격적이라든가 아니면 신선하다라든가, 독창적이다 또는 그가 변신했다 내지는 다시 성장하거나 확장되었다라는 등의 쇼크가 일어나지 않았었다.

그냥 1Q84는 너무나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하루키적인 작품이었다. 때문에 한없이 하루키의 초반 히트작들에 가까운 소설들을 읽어왔을 때 처럼 같은 방식의 궁금증과 같은 방식의 몰입만이 일어났고 끝으로는 같은 방식의 감상만이 남는 작품이었다. 이미 여러편의, 다소 성긴 분석의 틀로 썼겠지만, 지금은 더이상 열정적으로 쓸 수 없을 서평들을 적었던 나로서는 더이상 나올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이 해변의 카프카 이후의 하루키에 대한 글귀가 남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삶의 여유로움이 생긴 여름휴가, 부모님이 계시는 LA에 와서 7월 28일부터 8월 1일이라는 짧은 휴가 기간이 내게 주어진 뒤에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눈에 보여 구입한 3권은 내게 하루키에 대해서 몇마디 적을만한 내용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블로그에 접속해서 글을 적을 수 있는 에너지를 선사해주었다. 몇가지 서평을 검색해본바, 대부분의 글들이 출판사의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씌어져 있고, 아직, 활발하게 그 완결까지 그 글을 읽고 솔직한 서평들을 남기는 사람들이 없는바, 아 창조적인 오해와 더불어 내가 생각하는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남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버렸다. 어차피 하루키는 사람들이 다각도로 자기 방식의 관점을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씌여진바와 판판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상관없을만한 시점은 지금이다.

더구나 와서 보는 사람도 시비거는 사람도 없는 이 유쾌한 웹상의 골방과도 같은 공간에서 내가 뭘쓰든지 사람들에게 폐가 될만한 것은 없다.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면, 할말을 적을 시간도 힘도 없는 나는 아마도 댓글을 달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 공간을 운용하면 될 것이다. 마치 폐쇄적인 인격을 가진 이 3권 속의 세인물들처럼 "골방"으로 도망치면 된다. 하하.

덴고와 아오마메의 연애담으로 중심이 옮겨가면서 후카에리와 덴고와 고마쓰라는 삼인 공모작인 "공기번데기"이야기라는 중심 소재가 순식간에 빛을 바래게 되었다. 그 이유를 나는 하루키가 진작에 1Q84를 쓸 때 머리 속으로 제 3권과 4권의 출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7초에 한권씩 팔려나간 하루키의 1-2권은 2.5초에 한개씩 팔리고 있는 아이폰의 판매량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히트한 상품이다.

태엽감는 새 1.2권에 이어 어물쩍 3.4(일본에서는 3권만)권이 나왔던 전례를 보았을 때, 개인 기업가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하루키는 글로벌

판매고에 신이 나있을 출판사가 제시하는 속편 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열린 결말을 추구하는 방식의 글을 쓰는 하루키의 작법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가 흥행 성적에 따라 속편을 계획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처럼, 현명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굳이 태엽감는 새의 연장 공연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양을 둘러싼 모험의 히트는, 댄스댄스댄스라는 연장선상의 작품을 하루키로 하여금 다시 만들게끔 만들었고, 좋은 흥행 성적이 속편을 만들게 하는 경향은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 뮤지컬, 연극 등을 망라한 모든 장르의 문화 영역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요점은 그렇다면 그렇게 씌여지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하루키의 이 1Q84 3권은 얼마나 앞 서 있는 1, 2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씌여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필연성을 갖고 있는가가 이 책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뛰어난 그의 문장력과 스토리 창출 능력은 이 세번째의 권도 마치 처음부터 기획이 되있었던 것처럼 만들었다. 심지어 하루키는 1, 2권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루키가 아닌 누구라도 이를 읽은 한 자기만의 3편을 쓸 수 있는 것이며, 하루키 역시 자기만의 3편을 실제로 쓰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1. 하지만, "공기번데기"가 출판됨으로 해서 오는 "선구"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420페이지를 읽고 있는 동안 나오지 않고 있다. "공기번데기"에 관련된 후카에리라는 신비의 소녀의 비중이 급속도로 위축되어 버린 것은 상당히 "이상하다". 선구는 마치 양을 둘러싼 모험의 도덕성 유무를 일소한 확장만을 추구하는 권력단체의 모습처럼, 소설 뒤의 백그라운드로 변화한다. 싸우던 대상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종교 단체라는 대상에서 순수한 어린 시절의 사랑으로 맺어지려하는 남녀를 갈라 놓는 장애물로 변화해버렸다.
2. 우시카와가 제 3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많아지는 보다 리얼리스틱 소설에 가깝게 변화한 3권의 분위기는 1.2권의 다소 이상한 세계로 빠져든 것 같은 덴고와 아오마메의 풍경과는 다른 세계 속으로 모든 소설 속 현실이 옮겨간 듯한 변화를 만들었다.
3. 아오마메가 경험하고 있는 처녀 수태의 경우는 하루키 소설이 만들어낸 모든 센세이션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약하다. 왜 약하냐면 그 부분이 센세이셔널한 부분으로 이해되기를 하루키가 원하고 쓴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이 처녀 수태의 부분은 2권에서 권총자살로 덴고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했을 아오마메가 살아남아서 3권에서 계속해서 덴고를 찾아야만 하는 연결고리로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하루키는 후카에리와 덴고의 이전의 2권에서 나온 "덴고의 성욕은 개입하지 않은 채 똥가에 흘린 후카에리가 주도한" 롤리타적이면서도 금기는 넘어서지 않은 것 같은 성교 장면을 다시 아주 직설적으로 강조 표현하면서 후카에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덴고의 정자가 아오마메에게 이동했다라는 내용을 덧붙인다.
5. 이 외에도, 왜 다시 아오마메가 살아서 덴마를 찾아 다녀야 하는가가 여러차례 반복된다. 하루키로서는 3권이 어물쩍 등장하는데 따라서 오게될 수많은 논란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잠재우고 싶어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않았을까 싶어질 뿐이다.
6. 하지만, 수많은 신문사들,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모든 언론사들은 이 1Q84 3권에 대해서 하자를 잡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 인쇄 매체의 영향력이 죽어가고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인쇄된 작품으로서 선방을 하고 있는 인쇄 매체 진영의 히어로에게 그들은 동료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돌을 들더라도 던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어진다.
7. 그러나 하루키조차도 이 3권의 제작에 이은 또다른 평가가 다시 그에게 4권을 요청하면 이번에는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3권 자체도 씌여지지 않을 수 없었던 필연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1권과 2권 대한 평가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3권이 히트 하지 않는다면 4권은 씌여질 이유는 갖고 있더라도 출판할 이유는 잃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영화처럼 디렉터스 판을 만들어 소규모 출판해주는 일이 있지 않은 한은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7초에 한권씩 팔리는 1Q84의 판매량은 어쩌면 7-8권까지 그가 글을 써나가도록 만들 것만 같다. 계속해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인쇄매체 군단들이 그를 전격적으로 밀어준다면 말이다.

그리고 나 역시 내 글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길어지고 있으므로 3권에 남아 있는 300페이지 가량의 글을 읽은 뒤에 다시 감상문을 써보려고 한다. 이래저래 화제거리인 하루키의 영향을 받아 글을 쓰고 있는 하루키 반사 효과가 나에게도 입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웬지 위의 내 글은 약간 비판조의 글이 되어 버린 듯 하지만, 사실은, 동시대에 "유일무이"하게 동서양을 아우르는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동양소설가 하루키 만만세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나의 본심이다. 웹상에서든 신문 지상에서든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도 이제는 Untouchable

이 되어버린 하루키씨에겐 별거벗은 임금님 효과가 입혀져 있다. 뭔가 이상하다 싶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주저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보다보면 후광이 비추는 인물에겐 관대해지기 마련인 세상의 평판의 경향도 읽어낼 수가 있다. (책 속에서, 혼다 시빅 같은 차가 PPL처럼 대사에 등장해서 연비 좋은 차임을 홍보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와도 이를 트집잡는 사람조차 없다.) 악플의 위력마저 벗어난 위상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마치 그의 글에 대해서 메스를 드는 것은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마저 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종류의 시비 걸기가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고도 첨단 자본 주의 시장에서 인정받는 소설가는 자신이 이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팔듯이 자신의 소설을 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순수문학이 되었던 대중문학이 되었던 이제 거래 가치가 없는 글들은 급속도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단, 하루키처럼 뚜렷하게 팔릴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글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며, 자신이 속해 있는 크거나 작은 공동체까지 살릴 수 있다. 나는 그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느 부분임이 불구함에도 인정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에) 드러내고 싶어하고 있을 뿐이다. 오에 겐자브로나 미시마 유키오처럼 예술혼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작가가 그가 아니라는 것은 그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

반면에, 하루키에 대해서 일련의 사람들이 악플과도 같이 갖고 있는 또다른 대응 자세가 있다. 그의 책을 "읽지도 않고 폄하"하는 자세이다. 1990년 이전부터 번역서가 나온 그의 책에 대해서 20여년이 지나도록 비슷한 대응 자세가 있다는 것이 또한 재미있는 부분이다. 하루키를 없는 존재처럼 취급한다고 해도, 이미 그의 이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넓게 살포되어 있고, 노벨 문학상의 최종 후보까지 지명된 바가 있는 위상을 갖고 있다. 더더군다나 일본 헌법을 다시 그의 문장으로 쓰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노력도 있었던바, 그의 존재감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작품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우리 주위에 실제적인 것들과 더불어 살아 있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난, 우리 회사의 미국 여직원 한분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써놓은 글귀를 웹상에서 읽은 적이 있다(회사 우리팀의 홈페이지에 써서 올린 글이다). 동서양을 통털어서 지역 테두리를 넘어선 광대한 독자층을 구축한 하루키는 분명히 존경받을만큼 큰 일을 한 동양의 소설가이다. 그러나 그의 업적과 그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책의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한다는 당위가 될 이유는 없다. 하루키의 글을 열심히 읽은 독자라면 그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지금쯤이면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무도 그의 글에 따지를 걸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다가 그의 글의 중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마디 쓰게 된 것은 이런 질문이 내 안에서 생겨 났기 때문이다.

13

1Q84-다 읽고 쓴 감상문(스포일러 많음)

다 읽고나니 이제 더 읽을만한 재미있는 소설 글이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아닌 우려와 더불어 일종의 상실감이 남는다. 결말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전통적이라할 수 있는 결말같지 않은 열린 결말. 다음편을 기대하세요라는 말조차 필요 없다.

선구에 대한 이야기가 400여 페이지 이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오마메, 덴고, 우시카와 그리고 다마루, 곁들여 선구의 스킨 헤드와 포니테일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이 3권은 완전하게 1.2권의 스토리에 병합된 소설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전히 논리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아오마메의 처녀수태는 그대로이고, 후카에리가 천기누설처럼 퍼뜨린 '공기번데기' 이야기는 여러번 반복된다. (420페이지까지의 이야기는 <http://blog.daum.net/romanscoloumn/812579> 에 나온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의 선입견이 이후 300여 페이지를 읽으면서 완전히 깨지기 때문에 상당히 장문을 썼음에도 소설을 제대로 이야기 한 것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논리적인 연결이나 리얼리즘을 벗어난 스토리가 다시 우리의 현실 속으로 파고들어 오는 이유는 두 남녀의 끝간데 없는 서로에 대한 갈구이며, 이 갈구가 매우 육체적이고도 감정적이고 대단히 강렬하다는 점만이 이 소설이 현실의 세계와 연결고리를 갖고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처럼 여겨진다. 물론, '사랑'이란, 그것도 결정화되어 남는 아주 순수한 감정으로서의 '사랑'이란 문학에서 언제든지 얼마큼이든지 그려낼 수 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보통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학이나 소설 속에서 비현실적이라 느껴지곤 하는 것이 1Q84에서는 흐드러지는 육육의 향연과 더불어 오히려 현실적인 이야기로 느껴지게끔 만드는 것이 여타 소설류와 하루키 소설류가 다른 작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서로에 대한 20여년을 건너뛴 감정이 다시 불붙고 그것은 마치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서로에 대한 육체적인 갈구가 해소되는 부분은 여간한 야설이나 야동 못지 않은 매우 직설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최근에 읽었던 20대가 20대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라는 이유로 상을 받은 소설을 평한 20대 평론가의 글을 읽다보면 군대 다니는 군인들이 야동 대신 읽는 책으로 '상실의 시대'가 지적되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다. 다른 모든 스토리를 제하고서 하루키가 남녀 관계를 다루는 방법은 매우 야동스럽다라는 생각을 나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야동과 다른 점은 이 장면에 이르기 전까지의 스토리가 매우 합당하게 흐르고 있다는 점일 따름이다. 맥락에 어긋나게 시도되는 것 같아도 다 이유가 따르고 적절함이 넘칠 정도의 개연성이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이것은 하루키 스타일의 작법이다. 현실너머로 날던 새가 잠시 지상으로 떨어져 걷는 순간이라고 할만하다.

이미 덴고와 아오마메는 후카에리를 통해서 성적인 교합을 이루어낸 상황이다. 아오마메의 내부에는 덴고의 아이가 자라고 있고 이 덴고의 아이는 마치 이미 아오마메에게 (자신이 바라던) 죽음을 맞이한 선구의 교주의 피와 무관하지 않게 생긴 아이처럼 그려지고 있다. 덴고의 친부가 혹 이 선구의 교주가 아닐까라는 의혹을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스토리는 어떻게되든 완결성이 있는 결말을 향해 가주어야만 한다.

우시카와는 꽤 어이없이 죽어버린다. 그리고 이 죽음의 방법이 독자들중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간단하고 매우 치밀한 방법처럼 그려졌다. 개인적으로 이전에 보았던 영화 '데이비드 게일'에서 데이비드 게일이 사형제도의 모순을 보여주기 위해 캠퍼드에 나와서 여자(이 여자가 불치의 병에 걸려 자신을 죽이는 것을 동의한 상태에서)를 죽이는 방법으로 나왔던 비닐 봉투를 얼굴에 씌우고 공기를 막아버리는 내용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다 속을 여행한다라는 표현을 단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은 한국에서는 18세 이상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이다(물론, 이 책은 성적인 표현의 강도 측면에서, 이른바 한국의 청소년 관람가 등급을 이미 한참을 지나쳤다).

4권이 나오지 않는 것이 3권을 읽고나니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가 되어버렸다. 1,2권을 지은 뒤에 어물쩍 3권 만드게 아니나라는 비판이 무색해질 정도가 되어버리고 만다. 2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스토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어찌면 과잉이 될 정도로 나열하고 4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암시를 강력하게 배치해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에 하루키는 다시한번 3권을 어물쩍 써서 남긴 일에 대해서 자조하는 또는 자기합리화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 부분 남긴다. 이런 부분은 하루키가 농담도 좋아하는 작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고 너무나 진지한 작가일거라고 '이상화'하거나 '영웅화'시킨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되지도 않는다.

1. 1-2권의 어디쯤에서 다마루는 아오마메에게 아주 유명한 작가의 소설론을 하나 설명한다.

2. "소설 속에 나온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소설 속에서 씌여져야만 한다." 이를테면 못이 한번 나왔다면 주인공이 그 못에 찔려 죽기라도 해야만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매우 엄격한 소설 작법이론이라할 수 있으며, 아오마메가 다마루로부터 권총 한자루를 받는 순간 그 총이 결국에는 사용될 수 밖에 없다는 암시를 남겨준다. 이 작법이론에 충실히 따르기위한 작가가 하루키였다면 아오마메든 누가 되든지 이 소설 속에서 총에 맞거나, 총을 사용하거나 했어야만 한다.

3. 2편에서 사용되지 않은 총을 갖고 아오마메는 덴고와 재회해서 달이 1개뿐인 세계로 가는 비상구를 향해 가게 되는데, 이 와중에 앞서 설명되었던 소설 작법은 아주 직설적으로 부정된다. 소설 작법도 변화하기 때문에 꼭 그런 작법을 따라야할 이유는 없다라는 부연이 아주 멋들여지게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이 하루키가 소설 속에 꼭 써넣어야했을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키는 다만 유쾌하게 독자들에게 농지거리를 걸고 있는 것이다. "아오마메가 죽지 않고 덴고와 재회하는 3권의 결말은 2권만 봤을 때 좀 웃기지만 그래도 이해할 만 하지 않아?"라고 애교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루키의 모습이 떠오른다. 물론, 진지한 독자분들은 이런 부분이 자세히 보이지도 않으며 이 부분이 소설의 핵심을 제대로 설명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마루라는 인물도 과묵함을 벗어던지고 우시카와와 재기에 넘치는 대화를 나누기까지 한다. 상당히 지적이고 현학적인 이야기를 우시카와를 향해 던지는 다마루의 모습은 이 직전까지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칼 용이 자기의 집을 자신 스스로 지었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다가. '차갑던지 차갑지 않던지 신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을 집을 만드느라 쌓은 벽돌에 일일이 새겨넣었다는 말을 하고 모호한 암시를 남긴 뒤에 그대로 우시카와의 머리에 비닐을 씌우고 목에 공기를 막는 고무줄을 감는 모습은 역대 극화 속에 나타난 그 모든 킬러 중에 가장 고상하기 그지 없는 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이 소설이 하루키 내부에 있는 인간형들을 살살이 분해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왔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단단히 분해하고 자기의 욕망과 독자의 욕망과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를 형상화해주는 이 기술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유는 그 부분부분들이 하루키와 더불어 너무나도 오래 같이 자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이 소설의 주제는 하루키의 종래의 소설들과 크게 다름없이 시스템화되어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회 또는 종교) 조직 안의 인간들 또는 영물(양이라든가 리틀피플 같은)과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서로간의 교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간의 사투이다. 결국 하루키와 연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회 조직에 철저히 매몰되고 그 논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 다른 방식으로 자기자신이라는 존재감을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지닌다.

물론 하루키가 처음 소설을 써 내려가던 그 때만해도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회가 결국에는 어느정도 탈 사회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창조력을 원하는 사회로 바뀌어 가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키의 책이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의 소설이 변화하였다기 보다는 세상이 하루키가 원하고 바라는대로 (원했던지 원치 않았던지) 변해왔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도 출판계라는 조직에 어느정도 사회화 과정을 겪고 나름대로 안착해버린 사람이긴 하다. 그러나 그의 주제는 탈 사회화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소설이 주는 자유라는 공기를 마시고 독자들이 숨

쉬는 중독감을 맛보는게 아닐까?

우리나라에서 하루키처럼 국제적인 작가가 되어 현시대에 어깨를 나란히 했을만한 소설가로 나는 '무진기행'을 쓴 김승옥씨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쓴 이문열씨를 사실 꿈고 싶다. 그러나 두작가가 하루키와는 달리 범국제적인 소설가가 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하다.

1. 김승옥(70)씨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군사적 지시를 한 정권에 반대하여 절필을 한 후 종교적 계시를 받아 1980년대에 기독교에 깊이 몸담으면서 종교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눈부신 저술을 할 수 있는 창작력을 잃어오신 것 같고,
2. 이문열(62)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월북을 했기 때문에 오는 출신 성분에 대한 세간의 비난에 의해서 일류 작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극우에 가까운 발언을 남발하며 우파 정당의 인물로 정치계 쪽의 사회화 과정에 깊이 접어드시면서 더 이상은 눈부신 창작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치적인 변론의 힘을 보여주는 쪽으로 선회하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지나친 사회화 과정은 창작력의 쇠퇴를 낳는다고 본다. 심지어는 예술을 신봉하는 분위기의 문단에 사회화된 작가들은 그 해당문단에서 적극 통용되는 작품들만 남기다 사라져가곤 한다. 하루키(61)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 문단에 매장당한 작가도 아니고, 그가 좋아하는 미국 문단에 매장된 작가도 아니며, 그가 교수로 가있던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 생활에도 매장당하지 않았기에 아직 왕성하고 여러 곳에 미치는 바가 많은 작품들을 써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의 이러한 탈 사회적 인격(범죄자적인 인격과는 다른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나, 사실 범죄자와 소설가가 다른 점은 일단지에 그들을 다른 사건이 나올 뉴스가 사회적으로 비교적 긍정적이나 아니면 부정적이나의 차이일 뿐일 수 있다)은 '공기변데기'라는 작품을 쓴 후카에리가 덴고에게 대필을 요청해서 책을 출판한 뒤에 문학상을 수상하게 만들고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과정에서, 고마쓰가 일본 문단을 비웃고 조소하는 내용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그의 작품은 바로 당신의 시스템화 되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은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감성과 만나는 작품이라는 이야기이다. 우리가 하루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로 이 인간적이라 여겨지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키의 글들에 대한 서평

블로그 Roman's Freedom <http://blog.daum.net/romanscolumn>

저자 Roman

발행일 2012.08.29 12:48:05

 블로그